



2023 안성시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사람책, 지구에 점 하나

2023 안성시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사람책, 지구에 점 하나



ISBN 979-11-978276-4-8



2023 안성시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사람책, 지구에 점 하나

prologue · 6

삶 속에서 새로운 목표를 찾는 여정 _ 안성미디어센터장
새로운 기록 문화의 장을 열며 _ 안성문화도시센터장

1장. 사람책, 지구에 점 하나 · 8

사람책이란?
안성시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안내

2장. 10권의 사람책 · 14

1권 송용운 사람책 _ 전통 대나무 낚시대 장인의 길 · 16

- 1장 어린 시절 낚시 입문
- 2장 고교 중퇴와 전통 공예
- 3장 주경야독과 전체 수석 입학
- 4장 무역회사를 경영하며
- 5장 방기십 선생님과과의 만남
- 6장 용운공방
- 7장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정상 선물
- 8장 전통문화의 힘

2권

박송경 사람책 _우리의 아픔이 하나의 훌륭한 흥터가 되는 과정 • 34

1장 나의 오래된 성장통이 만든 흥터, 유년 시절 이야기

2장 나의 상처를 구하며, 숨을 쉬며, 앞으로 나아가기

3장 앞으로 있을 나의 멋지고 넓은 큰 세상에

3권

박순철 사람책 _유목민, 하리(Hari)쌤의 삶과 교육 • 48

1장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워짐

2장 사감행-역지사지 역지감지 역지행지

3장 우보천리,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

4권

전준기 사람책 _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 62

1장 뺑소니 사고 인생

2장 결혼 성공의 비결

3장 봉사봉사 자원봉사

5권

임상철 사람책 _안성에 미친 무수 이야기 • 78

1장 무수는 왜? 돈 버는 일보다 봉사활동이 우선인가

2장 지역사, 재미있게 배워야 오래 간다

3장 잘 놀고 잘 먹고 삶이 즐거운 안성을 만들고 싶다

목차

6권 이종일 사람책 _인생을 연출하자 • 92

- 1장 무대 위의 삶
- 2장 무대 밖의 삶
- 3장 새로운 무대를 향해

7권 강철규 사람책 _삶을 노래하는 유도인 • 110

- 1장 중학교 1학년 씨름선수, 2학년에 시작된 아버지 대를 이은 유도
- 2장 용인대 국가대표의 어려움
- 3장 2000년 3월 유도관 오픈식
- 4장 23년이 된 체육인으로 전국대회 우승목표
- 5장 음악 인생은 '연가' 하모니카 속 나의 목소리
- 6장 첫사랑과 헤어짐은 음악을 내 인생에 다시 살게 했다

8권 전미선 사람책 _해금+소리로 이야기하다 • 122

- 1장 악가무, 춤추는 가얏고-예술가의 꿈을 꾸다
- 2장 중앙대 안성캠퍼스
- 3장 재담 소리(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8호) 해금 소리로 악장을 말다
- 4장 안성 경서남잡가(안성시 무형문화재 제4호 안성 경서남잡가)
- 5장 안성사연구회
- 6장 아기엄마가 하는 사회활동의 현실
- 7장 야생에서 살아남은 국악인

9권 이인숙 사람책 _ 감사함, 축복 그 이상의 것 • 136

1장 부딪히는 대로 사는 삶

2장 다가오는 삶

3장 받아들이는 삶

10권 박소영 사람책 _ 나는 전통춤을 춘다 • 150

1장 춤을 시작한 동기

2장 호

3장 삶의 도전과 변화

epilogue • 164

사람책 진행자 민주희

사람책 진행자 김지윤

사람책 퍼실리테이터 김현순

사람책 담당자 김은정

삶 속에서 새로운 목표를 찾는 여정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작은 마을, 동네, 도시,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큰 소리를 내거나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남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는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벗어나 홀로 있는 시간이 되면 문득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작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2023년 안성시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사람책, 지구에 점 하나》가 시작됩니다. 이 책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목표를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열정과 꿈,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고유한 챕터를 형성하며 다양성과 풍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책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포용함으로써 더욱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비판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람책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각기 다른 세계를 헤아릴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람책, 지구에 점 하나》가 우리 삶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사람들 간의 소통과 이해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미디어센터장 *김우현*

새로운 기록 문화의 장을 열며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어느 광고문구가 생각납니다.

기록의 중요성은 역사, 종교, 문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표현됐고 지금도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사람책, 지구에 점 하나》는 그러한 의미에서 또 하나의 안성에 관한 새로운 기록 문화의 장을 열었다고 봅니다. 우리 동네의 평범하지만, 누구보다도 사람 향기 나는 안성시민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을 기회였습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시민과 삶의 기억은 기록으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빛은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안내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구에는 안성이 있으며 안성에는 귀한 여러분이 있습니다.

안성문화도시센터장 이 승 태



1장

사람책,

지구에 점 하나

1장

사람책, 지구에 점 하나

사람책이란?

“남을 이해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오해는 무지에서 시작되고 이해는 알아가는 과정에서 시작되죠. 누군가를 알고 이해하게 되면 폭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입니다.”
- 로니 에버겔(휴먼 라이브러리 창립자)

사람책은 2000년, 덴마크 출신의 사회운동가 로니 에버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책이란 단순히 종이 위에 활자가 책이 된다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의 모든 개개인(사람)이 곧 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Human Library’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는 현재 전 세계 70여 개 나라로 확산하여, 국내에서도 ‘사람도서관’, ‘휴먼라이브러리’ 등의 이름으로 전국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유한 가치관, 고민, 삶의 경험 등 저마다 이야기가 있기에 개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훌륭한 주제를 가진 책을 읽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임을 믿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지만, 한 번도 대화해 본 적 없는, 내 주변



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어 편견을 갖기 쉬운 대상이 ‘사람책’이 되기도 하고, 최근에는 100여 곳의 세계적 기업에서 기업 운영 과정에 사람책 프로젝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서울, 공주,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도 ‘사람책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안성에서 ‘사람책’을 통한 책과 방송을 한다는 것은 큰 문화적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책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였고, 또한 책을 통하여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본래 한 권의 책은 지은이 인생과 경험, 그가 가진 지식을 집대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책은 지은이 경험과 삶의 과정을 그들의 생생한 육성을 통해 직접 경험하려고 합니다.

사람책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판단하지 말기, 비판하지 않기, 타자 이해를 생각의 중심에 두기, 다양성에 대한 포용심 가지기입니다. 사람이 책이 되고, 그가 삶에서 얻은 경험이 다른 이에게 새로운 공감의 발견이 될 것을 확신하며 2023년 안성시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사람책, 지구에 점 하나》 시작합니다.

안성시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안내

사업 기간

2023년 8월 ~ 11월

사업 내용

안성시민 사람책 제작(라디오 녹음 및 구술집 제작)

모집 대상

안성 거주자로서 자신과 안성에 대한 기억을 제공하고 공유하길 원하는 사람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이나 철학을 전하고 싶은 사람
자신만의 스토리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사람

진행 방법

안성미디어센터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대화(녹음) 진행

프로그램 기획

안성미디어센터



사람책 라디오 진행

민주희(진행), 김지윤(라이퍼스 대표), 김현순(사람책 퍼실리테이터),
이병채(문화도시 기획단장)

사람책 라디오 녹음

유소이

사람책 사례집 제작

차영선

추진 과정

- 공고 및 접수 : 2023년 8월 31일 ~ 9월 20일
- 선정 및 발표 : 1차 2023년 9월 12일 ~ 14일, 2차 9월 21일 ~ 22일
- 오리엔테이션 : 2023년 9월 23일
- 사람책 라디오 녹음 : 2023년 9월 ~ 10월
- 구술집 제작 : 2023년 10월 ~ 11월
- 마무리 : 2023년 11월





2장

10권의

사람책

1권

송용운 사람책

‘전통 대나무 뉘싯대 장인의 길’

“대나무로 뉘싯대를 만드는 일이 쉬운 길이었다면 함께 가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쉽지 않은 길이라 홀로 견고 있어요. 보통 전통공예를 자신과 동떨어진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괴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있는 공예어야 전통이 이어지고 발전할 텐데. 저는 전통이 우리 삶과 떨어지지 않은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송용운 (용운공방 대표, 안성맞춤명장 제7호 명장, 사)대한민국기능전승자회 회원)

contents

- 1장 어린 시절 뉘시 입문
- 2장 고교 중퇴와 전통 공예
- 3장 주경야독과 전체 수석 입학
- 4장 무역회사를 경영하며
- 5장 방기섭 선생님과과의 만남
- 6장 용운공방
- 7장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정상 선물
- 8장 전통문화의 힘

keywords

- #중퇴 #무역 #장인 #명장
- #공예의아버지 #푸틴 #공방
- #대나무뉘싯대 #수석 #감태공

story





송용운 사람책

‘전통 대나무 낚시대 장인의 길’

1장, 어린 시절 낚시 입문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만들기를 좋아해서 라디오, 시계 등 손이 닿는 대로 분해하고 조립하며 호기심을 풀어왔죠. 집에 성한 물건이 없을 정도였어요. 겨울철이면 연날리기와 팽이치기를 하면서 놀았는데, 놀이 도구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연이나 팽이를 보고 만들어 달라는 친구가 많았어요. 친구들에게 만들어 주고, 같이 놀면서 나름 인기도 많았어요. 초등학교 2~3학년 때쯤 아버지께 대나무 낚시대로 낚시를 배웠어요. 아버지가 물가에 앉아 대나무 낚시대에 지렁이 한 마리를 끼워 낚시하면 커다란 붕어가 잡혔어요. 옆에서 지켜보니 참 신기하고 경이로운 거예요. 하늘에 흰 구름이 떠다니고 잔잔하게 부서지는 잔물결에 햇살이 부서지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굉장한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시작한 낚시가 평생 취미가 되었고, 지금은 업이 된 셈이죠.

‘내가 만든 낚시대로 낚시하면 좋겠다.’

대나무를 구하면 낚시대를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낚시를 했어요. 제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모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만든 낚시대가 조잡하긴 하지



만 그렇게 제 낚시 인생이 시작됐죠.

중학교 때 대중교통편이 많지 않으니 주로 걸어서 학교에 가거나 형편이 좀 괜찮으면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토요일이면 자전거 짐칸에 책가방 대신 낚시가방을 싣고 갔어요. 수업이 끝나면 강이나 저수지에서 낚시를 했어요. 자연 속에 녹아서 좋아하는 일을 즐겼던 경험은 지금까지도 가장 큰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2장, 고교 중퇴와 전통 공예

동네에 주인 이름을 내세운 빵집이 딱 한 곳 있었어요. 한결같이 맛있는 빵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커서 어른이 되면 이름을 걸고 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중학생 시절에는 공부하고, 낚시도 다니며 그럭저럭 지냈어요. 아버지에게 이 발기를 사달라고 부탁해서 동급생 머리를 깎아주며 용돈벌이도 했었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사업이 잘못되면서 학교를 더 다닐 수 없었어요.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고, 방황하기도 하잖아요. 학교 그만두는 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학교 성적은 상위권이었지만, 집안이 몰락해서 저도 당장 생산적인 일을 해야 했어요.

고등학교 중퇴 후, 전통 가구를 만드는 공예사에 들어가서 전통 가구를 배웠어요. 나무에 대해 이해하고 수공구, 목공기계를 다루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 대나무 낚시대 제작하는 바탕 기술은 이때 다 닦았어요.

몇 년간 일하며 문득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어요.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아이들을 보면 부럽기도 했어요. 학교를 그만둘 땐 홀가분한 마음이 컸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학생들과 졸업하지 못한 내 모습이 비교되는 거죠. 5년, 10년 뒤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불안했어요.



3장, 주경야독과 전체 수석 입학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철이 들었어요. 제가 다시 공부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던 이유는 업신여김 때문이었어요.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고등학교 졸업도 못 한 애가 뭘 하겠냐는 시선, 내 모습이 한정되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더니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겼어요.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또 혼자 갈등이 생겼어요. 고등학교 졸업으로 만족할 것인지, 대학에 가서 더 공부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기왕에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으니 대학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낮으로 공부했어요. 새벽 첫 버스를 타고 5시에 남산도서관



관에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곤 했던 기억이 선해요.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그 안에 들어가면 대학에 들어갈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떨어질 것 같은 강박관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늘 앞줄에 서서 입장했어요. 오후까지 혼자 공부하고 저녁에는 서울역 근방에 있는 단과학원에서 영어나 수학 등 필요한 과목만 배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머리가 녹슬지 않아 공부한 내용을 스피치처럼 짹짹 빨아들였나 봐요. 다행히 대입 시험에서 좋은 점수가 나와 웬만한 대학에 다 들어갈 수 있었지만, 여전히 집안 형편은 어려워 등록금 내고 다닐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부산에 있는 대학에 전체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제게 부산이라는 도시가 새로움으로 다가왔어요. 서울에서만 생활하다가 바닷가가 있고,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파도가 넘실대는 부산을 생각하니 좋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제게 거는 기대가 상당했어요. 남들과 다른 제 모습을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학교 앞에서 자취했는데, 집에서 한 달에 삼만 원 받아서 이만 원은 방세 내고 남은 만 원으로 라면 두 상자를 샀어요. 라면으로 한 달을 끼니를 때우는 거죠. 겨울이 되면 연탄까지 사야 했어요. 심지어는 연탄가스로 인해 죽다 살아난 적도 있었는데 이런 어려운 시절도 청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4장, 무역회사를 경영하며

당시 우리나라가 살길은 수출뿐이었는데 전문 인력이 아주 부족했었죠. 저는 영어 전공에 부전공으로 무역을 했고, 수석 입학이라는 점 때문에 졸업 전에



무역 회사에 취업했어요. 영어로 대화하고 결과를 만들어 내고 계약을 따내거나 외국을 다니면서 바이어를 만나 미팅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성취감을 느꼈어요. 신세계였어요. 제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낚시는 내 안에 늘 녹아 있었기 때문에 외국 가면 그 나라의 낚시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바이어에게 낚시할 곳 없냐고 물어보고 중국이나 대만, 일본 등에서 해봤는데 우리 방식과 조금씩 다 달라요. 새로 방문하는 나라마다 전통문화를 살펴보고, 전통 공연을 보면서 전통문화의 가치를 일찍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당시 무역은 많은 자금이 필요치 않은 업종이었어요. 만들어 놓은 물건을 수출할 능력이 필요하니까 저 같은 오피상이 수출입 창구로 필요했었어요. 한 나라에서 싼 물건이 다른 나라에 가면 비싼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정보 공유가 활발하지만, 당시에는 아니었잖아요. 그것만 알아도 돈이 되었어요. 동기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무역 사업을 시작했는데 매출이 높았고 하는 대로 다 잘 되면서 좀 오만해졌어요. 그때 몰랐죠.

사업이 커지다 보니 경영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에 편입해서 경영 감각이나 경영 이론 등을 배웠어요. 방통대는 공부가 필요해서 온 사람이 대부분이다 보니 스터디그룹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그중 석탑이라는 그룹에서 활동했어요. 방송대에서도 장학금을 받아 2년 만에 졸업했어요.

1992년부터 일본에 농축산물 수출을 많이 했는데, 주로 신선한 상태의 농산물이나 돼지고기 신선육을 냉장 상태로 수출했어요. 당시 전 세계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맺으면서 쿼터제를 도입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어 남는 실정이지만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외국 물량을 더 수입해야 해요. 저는 수출을 했기 때문에 수출 실적이 수입 쿼터 물량으로 배정



되거든요. 대만은 축산업이 발달했지만, 삼겹살 선호도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짠어요. 제가 대만 삼겹살을 수입할 수 있는 쿼터가 있으니깐 수입하면 최소 3배 이상 중간 이윤을 볼 수 있었어요. 이때다 싶어서 용자까지 끌어들여 대만에서 삼겹살 열두 컨테이너를 수입했어요. 우리나라에 팔려고 하는데, 대만에 구제역이 돌았어요. 우리나라에는 6·25전쟁 이전에만 구제역이 있었기 때문에 구제역을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구제역은 돼지에게 치명적인 질병이었던 거죠. 잠복기간이 한 달이라고 하니 한 달 이전에 수입한 물량을 폐기하거나 돌려보내래요. 지금이야 국가보상제도가 있지만 당시엔 없었어요. 잘 나가던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남다른 자부심으로 꽉 차 있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다시 낚시를 다니고 대나무 낚싯대를 만들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저 혼자만의 삶

이 아니고 가족이 있으니까 다시 무역 일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실패학을 인정하지 않아요. 외국에는 실패의 원인을 찾고 실패를 안 하기 위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패배자, 낙오자 낙인이 찍혀서 다시 뭘 해보려 해도 쉽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직장도 못 찾고 있다가 나중에 취업이 되어 무역 일을 이어서 했죠. 그때만 해도 낚시대를 만드는 공방을 하리라는 생각은 못 했어요.

직장생활을 하며 형편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채가 남아있어서 궁핍한 삶이었어요. 아이들 학비도 필요하고 생활도 해야 하고, 좋아하는 낚시도 해야 했거든요. 무역 일을 다시 하면서 틈만 나면 외국에 가서 계약 따오고 바이어를 상담하는 일을 했어요.



5장, 방기섭 선생님과 만남

FRP 글라스 로드 낚시대가 개발되고 출시되면서 대나무 낚시대를 만들던 많은 장인이 사라지고 순천 방기섭 선생님만 유일하게 남아있었어요. 코엑스에서 열린 낚시 박람회에 방기섭 선생님이 오신다기에 제가 만든 낚시대를 가지고 갔어요. 방기섭 선생님께 인사드리면서 제 낚시대가 잘못된 점을 봐달라고 했더니, 배우지 않고 혼자 이 정도로 만들었으면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날 때 순천으로 오라고 해서 그때부터 자주 찾아갔어요. 공방 일을 도우면서 낚시대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단지 내가 만든 대나무 낚시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었지, 내가 공방을 운영하며 대나무 낚시대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좀 더 완성도 높게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강했거든요.

제가 일본에 가서 바이어와 낚시하는데, 가방 안에 대나무 낚시대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중에서 한 대를 제게 건네면서 한국에는 이런 거 없지 않느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한국문화를 알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났어요. 우리나라에도 대나무 낚시대를 만드는 장인이 아직 있고, 나 역시 어릴 때부터 내가 만든 낚시대로 낚시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남들보다 일찍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 문화를 접했고 외국에서 낚시하면서 문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6장, 용운공방

방기섭 선생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대나무 낚시대 공방을 이어가다가 생활고로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도 일이 바빠 한동안 찾아

뵈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러다간 내가 좋아하는 낚시 만드는 전통이 사라지고 끊어지고 말겠다는 생각에 무척 안타까웠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대나무 낚시대를 만들어 왔고 방기섭 선생님께 배우기도 했으니 전통을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풀리게 된 것예요. 전통을 이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순천에 가서 방기섭 선생님의 사모님을 찾아뵈었어요.

대나무 낚시대 만드는 전통이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데 그 전통을 이어간다는 사람이 나타나니 사모님이 무척 반기셨어요. 저더러, 자녀가 이어서 해주다면 돌아가신 방기섭 선생님도 좋아하실 거라며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했어요.

문제는 집사람이었어요. 모아 놓은 돈도 하나 없고 부채도 많은데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며 반대가 심했는데 제가 고집을 세웠어요. 집사람 데리고 순천에 가서 사모님을 만나 뵈고 설득했어요. 제가 고집이 세니 결국 승낙하더라고요. 집사람이 직장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3년만 아이들 학업을 책임져 주면 저는 안성에 내려가서 공방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 혼자 안성에 왔지만, 워낙 갈망하던 일이라 어려움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행히 안성에 있는 친구가 돈을 빌려줘서 작은 공간을 확보하고 기계를 사서 일을 했어요. 친구 도움 없었으면 할 수 없었을 텐데, 나를 믿어줘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도 참 감사해요. 저는 3년만 일을 하면 월급 정도는 만들 수 있으리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앞이 캄캄해요. 어릴 때 전통 가구를 만들면서 내 앞날을 생각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아서 변화를 시도하고 검정고시를 했던 것처럼. 문제는 동력이 떨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먹고 살아야 하는데 돈이 안 되니 열정도 떨어져 버렸어요.



7장,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정상 선물

전통 상품 공모전이나 대한민국 공예공모전 등 우리나라에 많은 공모전이 있는데, 시간 날 때마다 출품했어요. 입선, 특선, 대상도 받았지만, 여전히 집사람과 약속한 3년은 지켜지지 못했어요.

‘이 일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상 회담이 있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선물할 공예품을 선정 중이래요. 몇 가지 전통 공예품 중에 선정하려고 하니 대나무 낚싯대도 같이 심사했으면 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정상 선물로 선정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내고 기다렸어요. 일주일 뒤



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오지 않아서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나무 낚싯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기회가 다시 동력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올 수 있었어요. 고비마다 피할 길을, 도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줘서 감사했어요. 이전에도 방송 출연을 몇 번 했었지만, 정상 선물로 선정된 후에 더 많은 방송 출연 제의가 들어왔어요. 6시 내 고향, 동네 한 바퀴, 로드 다큐 만남, 원더플라이프 등에 출연했고 드라마나 영화 속 낚시 장면에도 제 낚싯대가 많이 나왔어요. 돈 안 되는 일이지만, 전통 대나무 낚싯대를 알리고 제 이력에 도움이 되려고 많이 협찬했어요. 다행히 많은 사람이 그전보다 우리나라 전통 낚싯대 만드는 장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통을 이어가 줘서 고맙다고 말도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제게 많은 힘이 되고 도움이 되죠.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집사람이나 아이들 희생이 너무 컸기 때문에 늘 가족에게 미안해요. 지금은 아이들이 성장하고 독립했지만, 제가 금전적으로 더 도움을 줬더라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개척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8장, 전통문화의 힘

지금도 대나무 낚싯대 만드는 일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전적인 어려움은 있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은 꼭 이어져야 한다는 열정으로 제가 일을 시작했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야 할 텐데 아직 없어요. 많은 사람이 와서 배우겠다고 왔지만 제가 그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어



요. 찾아왔던 사람들도 현실적으로 엄두가 안 났는지 포기하고 돌아갔고요. 제일 큰 바람은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전통을 이어갔듯이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대를 이어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돌파구가 필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무형문화재로 선정이 된다면 배우러 온 문하생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으니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일본에서 낚시하며 대단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자국 문화를 사랑하는 정도가 상상 초월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대나무 낚시대 만드는 사람이 저 혼자지만 일본은 45명 정도 있어요. 일본은 나라에서 지원받고 문하생을 받아서 전통 낚시 문화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는 지원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제가 안성맞춤 명장으로 선정되고 한 달에 12만 원 지원받아요. 심지어 올해는 그 예산마저도 삭감됐죠. 참담하고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 문화정



책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알아봐 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본은 아버지가 전통의 길을 가면 가족 모두가 존경받고 대를 이어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운이 도래했다고 천우신조라고 말해요. 케이컬처(K-Culture), 케이팝(K-Pop), 케이푸드(K-Food), 한복 등이 세계적으로 큰 화재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있는 그대로 포장해서 알리면 세계 문화를 한류가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가 아무리 고도로 발전한다 한들 고유의 전통문화가 없으면 사회는 무너지고 말아요. 전통문화의 힘이 우리 정신이고 얼이기 때문에 본바탕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2권

박송경 사람책

‘우리의 아픔이
하나의 훌륭한 흉터가 되는 과정’

“요즘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제 그림도 그리고 있어요. 여름과 가을을 잘 느끼면서요. 그림은 제 전부거든요. 제가 그린 그림을 봐주고 이야기하고, 감상평을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에 밤 산책을 하다가 속으로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봤어요. 나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과거 상처가 잘 아물어 가고 있는가. 사람책은 누군가 내 생각을 공유한다는 것인데, 한 번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를 남에게 해도 될지를 생각했어요. 저는 앞으로 세계에서 이름을 알리는 사람이 될 테니까 세상에 내 이야기를 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저는 그림의 뒷면을 보여드려요. 그림을 그리고 뒷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 그림의 앞면만 보잖아요. 왜 우리는 그림 뒷면을 못 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림 그리기 전 스케치를 하잖아요. 물감과 물감이 겹치면서 스케치가 가려지게 돼요. 저는 그림을 그렸던 첫 시도, 첫 터치, 면과 면이 만나는 첫 순간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내면의 상황이나 겉에서 드러나지 않는 진실과 마음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 박송경 (작가명 송경)

contents

- 1장 나의 오래된 성장통이 만든 흉터, 유년 시절 이야기
- 2장 나의 상처를 구하며, 숨을 쉬며, 앞으로 나아가기
- 3장 앞으로 있을 나의 멋지고 넓은 큰 세상에

keywords

- #젊은여자작가 #안성토박이 #해의
- #해외수상 #백성초 #비룡중
- #안성어고 #그림 #전시회

story





박송경 사람책

‘우리의 아픔이 하나의 훌륭한 흉터가 되는 과정’

1장, 나의 오래된 성장통이 만든 흉터, 유년 시절 이야기

노랗게 벼가 익어가고 햇살이 가장 뜨거운 가을에 제가 태어났어요. 저는 유치원에 다니면서 동물과 자연 속에서 지렁이도 맨손으로 만질 줄 아는 멋진 아이로 자랐어요. 동시에 우리 집은 다른 집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친구 몸은 깨끗한데, 저는 멍으로 더러워져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유치원에 오면 놀기 바빴지만, 저는 조용한 곳을 찾느라 바빴어요. 놀이터 미끄럼틀 아래에 숨어 있거나 수업 시간에는 화장실을 간다고 말하고 나와서 풀밭에 웅크리고 누워서 잠을 잤어요. 우리 집은 밤에 제일 시끄러웠거든요. 그럴 때면 창고 같은 방에 혼자 들어가서 벽이나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다가 잠이 들곤 했어요. 그림은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니까요. 그림을 그릴 때면 어느덧 주변이 고요해졌어요.

고등학생 때 적성검사를 했는데, 제 집중력이 상위 0.1%래요. 어린 시절 혼자 그림을 그리며 만들어진 집중력이 아니었을까요. 색채 감각이나 공감각력도 상위 0.1%였어요.

제가 유치원 졸업 후, 백성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날이 갈수록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아버지 직업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놀아나는 거짓말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땐 미처 몰랐어요. 엄마도 속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따뜻한 물이 나오기는커녕 바닥 타일이 깨져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집에 살았어요. 공중화장실 한 칸과 방 하나뿐이었어요. 밤이면 자장가처럼 쥐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었고, 아침마다 죽은 쥐 사체를 봤어요. 먹을 음식이 부족해서 라면 같은 즉석 음식을 먹었어요. 늘 술에 취한 아버지는 누군가 버린 곰팡이 핀 빵, 속이 썩은 참외 같은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왔어요. 저는 잘 씻지도 못했고 눈에 보이는 음식은 그때그때 먹고 살았으니, 살도 많이 쪼여요. 전 초등학교 때 따돌림을 당했어요. 엄마는 다른 친구들이 안 입는 옷을 얻어와서 제게 줬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전 거지라고 불렸어요. 친구들이 입다가 버린 옷을 제가 입었으니까요.

예전에 백성초등학교 교문 앞 양쪽에 오르막길이 있었어요. 저는 친구들이 잘 다니는 정구장 쪽 길 말고, 반대쪽 길로 다녔어요. 새로 이사 간 집이 그쪽이었던 거거든요. 눈이 소복하게 쌓인 한겨울 아침, 등굣길에 군복 입은 남자가 제게 다가와서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있는 힘껏 외쳤어요. 어른들이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길 가던 할아버지가 혀를 차며 저를 보고 지었던 표정이 잊히지 않아요. 제 키가 160cm라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렇더라도 실내화 가방을 들고 있었고, 촌스러운 책가방을 메고 있었는데요. 도와달라는 말도 했잖아요. 키가 커도 초등학교인 제가 어른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 남자는 제가 계속 울어서 재미 없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교문에서 2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다른 친구들과 같이 등교했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아무에게도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바닥에 쌓인 눈으로 얼른 제 얼굴과 몸에 묻은 타액 같은 걸 닦아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어차피 부모님이 알아도 도와주진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보고 더럽다고 하진 않을까? 부모님께 말하면 해결 방법은 있을까?’

저는 그날 입었던 옷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중학생쯤 되어 초등학교 때 성폭행 당했던 사실을 털어냈지만 그뿐이었죠.

“송경이는 급식비 안 내도 된다. 학교에서 내줄 거야.”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역시 재는 거지라며 친구들이 웅성거렸어요. 게다가 밤에 집으로 찾아온 경찰이 부모님이 싸우는 광경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어른들이 미웠어요.

“선생님, 제가 뭐 도움 일 없을까요?”

저는 학교 끝나면 청소 당번이 아니더라도 당번처럼 교실을 청소했어요. 그래서 선행상을 늘 받았어요. 수업 끝나면 도서관에 가 있으라며 저를 밀쳤던 선생님도 있었어요. 선생님도 업무가 있는데 제가 계속 교실에 있으니 귀찮았겠죠.

저는 아이들이 버리고 간 물감이나 크레파스를 모아 저만의 그림 도구를 만들었어요. 모든 선생님이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 가고 빈 교실에 제가 남아 있으면,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주며 그리고 싶은 그림 마음껏 그리라고 보듬어 준 선생님도 있었어요. 제가 해외 관련 책을 읽는 걸 알고 유럽 여행을 다녀와서 사 온 돌고래 동전 지갑을 몰래 선물해준 선생님, 찢지 못해 떡진 머리를 쓰다듬어 준 선생님 덕분에 저는 성장할 수 있었어요. 세상에 좋은 어

른들이 있다는 것 알았고, 나중에 크면 이런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때 정구부 친구들이 여러 번 도와줬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아기 엄마로 살거나 어디선가 멋진 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때 정말 고마웠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집으로 이사하면서 저는 더 이상 거지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외적인 게 얼마나 대단한지 느꼈어요. 깨끗해지자마자 1학기 부반장을 맡았거든요. 만장일치로요. 그때 반장인 아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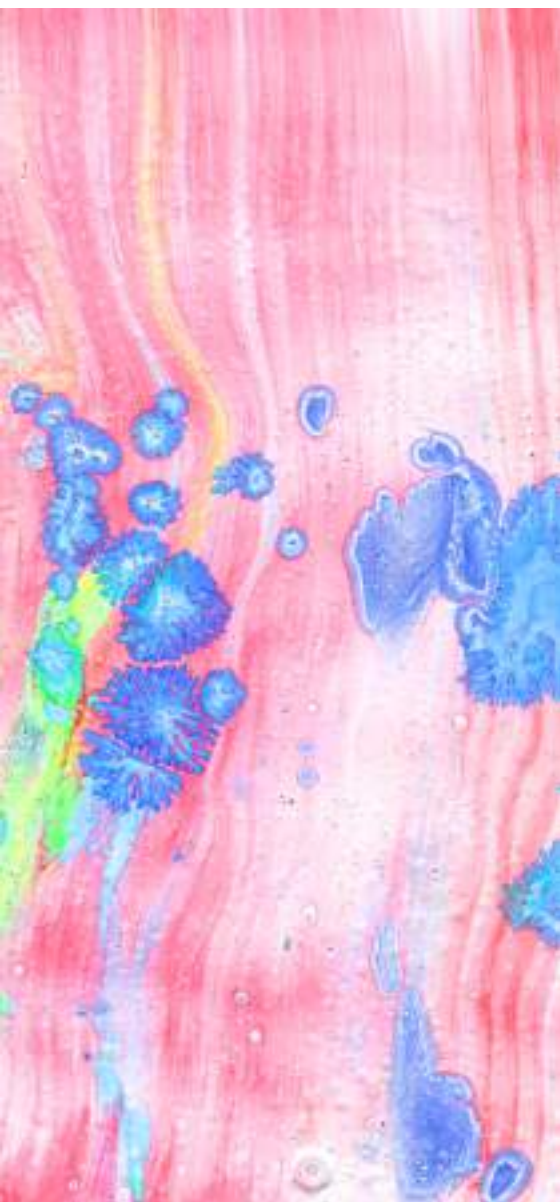
“송경이는 좋은 아이거든. 우리 부반장 해도 돼.”

저는 마법처럼, 언제 왕따를 당했나 싶을 정도로 학교생활을 잘했어요.

전 늘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전교생이 제 이름을 다 알 정도로, 또 재야며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조회 시간에 불러 나갔어요. 초등학교 때 미술대회와 과학대회에 받은 상이 120장 정도 되나 봐요. 대회에 자주 나갔던 이유 중 하나는 부모님 관심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대상에게는 선물로 5천 원권 문화상품권을 줬어요. 상품권을 받아 색연필, 사인펜, 스케치북을 사고 아크릴 물감이나 유화물감을 사서 독학했어요. 도서관 책을 빌려 보면서 차근차근 그림을 연습했어요.

혼자 그림을 그리다가 세상에서 하나뿐인 제 그림을 찾게 되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본격적인 예술이 시작되었어요. 졸업식 때 과목별 우등생에게 상을 줬어요. 미술 부분 시상을 앞두고 친구들이 다 저를 봤어요. 분명히 송경이 이름을 부를 거라고, 받을 만한 사람은 송경이 뿐이라면서요. 그런데 이름이 불린 건 다른 아이였어요. 졸업식을 마치고 담임선생님께 물어봤더니 그 아이 엄마가 어머니회 활동을 했대요.

‘나를 버티게 해주었던 것이 이렇게 밟아지는구나.’



그날은 참 많이 울었어요.

비룡중학교에 입학하고 학교 대표로 활동하며 ‘안성마추미’를 했어요. 학생이 안성시 홍보 대사가 되어 활동하는 일인데요. 2년간 안성마추미를 하면서 미술대회에 잘 나가지 않는 저를 발견했어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졸업식 때 상처가 꽤 컸나 봐요. 그런데 미술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시고 대회에 나가보자며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다시 미술대회에 나가고 상을 받았어요. 중3이 되니 학교에서 추천서를 써준다면 예고 진학을 권했어요. 하지만 집에서 반대해서 가지 못했어요. 미술은 돈을 못 버는데 붓쟁이가 되어 뭘 하려고 그러냐는 이유였어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공장에 가서 돈이나 벌어 오래요.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랄까요. 제가 설 수 있는 계단을 부모님이 다 부수었어요.

전 안성여고에 다녔어요. 저는 늘 조용한 아이였어요. 집에 가면 또 지옥이 시작되고 급식비도 못 내는 상황에 대학도 당연히 못 가겠구나, 싶었거든요. 야간 자율 학습 끝나고 집에 가면서 늘 울었어요. 친구들은 마음껏 꿈을 꾸며 공부하는데 나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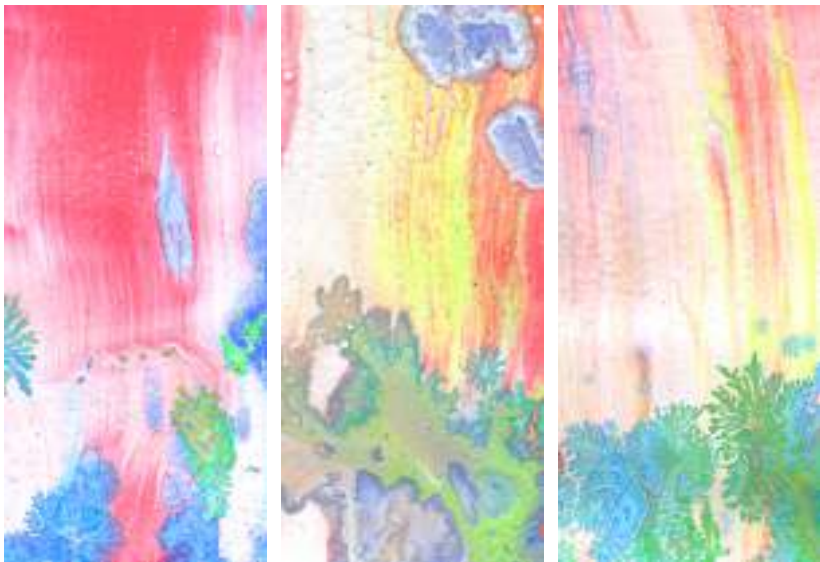
제가 그때 가장 많이 한 일은 책 읽기예요. 졸업할 때까지 책 100권을 읽고 독후감 쓰는 활동이 있었어요. 내신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 문학 선생님이 한번씩 독후감을 걷어갔는데, 항상 코멘트를 달아 줬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이야기, 내 현재 상황과 생각이 들어간 글을 하나하나 읽고 답을 달아준다는 게 제게 엄청난 힘이 되었거든요. 나중에 문학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간다는 말을 듣고 선생님 앞에서 한참 울었어요. 그래도 전 교생 중 제가 가장 먼저 100권 독후감 쓰기를 마쳤어요. 부모님조차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데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좋았거든요.

저녁엔 지옥 같은 집에서, 낮엔 조용하게 학교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미술 선

생님이 제게 전국대회를 나가보라고 권유했어요. 제가 혼자 그림을 그린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예고, 특목고, 유명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 지방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온 학생은 저뿐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끝 번호래요. 저한테 그림이 전부니까 기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당히 1등을 차지했어요. 많은 언론 인터뷰를 했고, 대학교수님을 알게 되었고,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어요. 1등 부상으로 서울 SETEC에서 제 그림을 전시했어요. 고등학생인데도 여러 곳에서 전시했고, 제 작품을 좋아해 주는 팬도 생겼어요.

‘내가 있을 곳은 여기구나, 나는 이곳에서 빛이 나는구나.’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빛을 내서라도 대학교에 가야겠다는 꿈을 꾸었어요. 그러나 꿈은 박살이 났어요. 저를 학대하던 아버지가 위독해졌거든요. 아버지는 자식의 미래보다 본인 건강이 우선이었으니 저는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



었어요. 여자는 ‘중’이라고 늘 말하던 아버지의 뜻대로 저는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퇴근하면 병원에 가서 병간호했고요. 아버지는 병원에서 난동을 부려서 이곳저곳 옮기다 못해 안성 외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야 했어요. 저는 숨어 살았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살았어요. 친구들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저는 젊음으로 번 돈을 저를 학대한 부모에게 쓰고 있었으니까요.

제 현재 상황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친구에게는 그림 그리느라 바쁘다고 말했어요. 좀 눈치 있는 친구들은 저보고 엄마가 허락했다며 자기 집에 와서 살래요.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잘 버티다 보면 앞으로 해결이 되겠지, 라는 마음이었어요.

본인 건강이 자식보다 중요하고, 거짓말과 학대,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에게 저는 제 인생을 포기하며 끌려다녔어요. 제 학비를 가지고 있으니 잘하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제 젊음을 아버지에게 쏟아부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치를 돈이 부족해서 1일장으로 치렀고, 예상대로 아버지 지인은 한 분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제야 학대가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2장, 나의 상처를 구하며, 숨을 쉬며, 앞으로 나아가기

전 매일 울었어요. 밤이 무서웠고 아침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볼 생각이 없냐며 연락이 왔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평생 가족에게 피해를 준 아버지를 보고 살아서 진절머리가 났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까 봐 겁이 났거든요. 저는 고졸이고 누군가 가르쳐 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 괜찮다며 일단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할 수 있어. 강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니까.”

저를 잘 아는 친구가 해준 말에 용기를 얻어 첫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수업 하러 가는 버스 안에서 창문에 비친 저를 보며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웃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자고 되새겼어요. 불편한 정장 차림에 화장하고, 미술 선생님과 어울리지 않는 용모로 첫 수업을 마쳤어요. 수업이 끝난 뒤 아이가 두 팔 벌려 제 무릎을 안더니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빈 교실에서 울다가 청소하고 나오는데, 담당 선생님이 잘했다며, 웃음소리가 계속 났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계속 공부하며 아이들을 위해 더 좋고,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찾아갔어요. 아이들을 통해 세상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그 뒤로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며 더 많은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이의 상처를 알아보고 저처럼 사

량을 통해 일어나기를 바라며, 더 큰 사랑을 주려고 매 순간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셈이에요.

3장, 앞으로 있을 나의 멋지고 넓은 큰 세상에

누군가는 평생 노력해도 못 찾는 자신의 그림을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찾았잖아요. 힘들고 아픈 상처를 스스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힘이 되어줬다고 생각해요. 학원이나 전문 교육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시골 촌뜨기를 기억해 주고 지원해 준 좋은 어른이 많아요. 공장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일 년에 한 번씩 전시했어요. 전시를 도와준 분이 제가 1등 한 전국 대회 때 주최 측이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제 상황을 눈치채고 도와주셔서 화가라는 직업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힘들었던 순간, 세상에서 가장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그림을 그리며 살아 나가고 있어요. 순수한 사랑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제 그림을 보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호스피탈이라고 병원 시리즈로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그림 그리는 과정이 상처가 치유되는,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그리고 있어요. 예쁘고 반짝거리는 색깔이 서로 만나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분명 모두가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상처나 흉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 그림을 통해 위로받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내 편이 아니더라도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하나뿐이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의 상처는, 우리의 흉터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요. 너무 슬퍼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요. 저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제 이름을 보면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하면서 전시회도 한 번 와 보시고 그림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사주를 봤는데 제가 예술로 대성해서 전 세계에 제 이름을 널리 퍼뜨리고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 이름 ‘송경’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3권

박순철 사람책

‘유목민, 하리(Hari)쌤의 삶과 교육’

“학생들은 저를 하리쌤이라고 부릅니다. 저 또한 하리쌤이라고 소개해요. ‘노메딕 하리’ 하리는 인도네시아어로, 일(day), 요일, 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목민이라고 하면 노마드라는 명사를 써요. 제가 노메딕이라는 형용사를 쓴 이유는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에버레트 라이머가 ‘학교는 죽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코로나19 이후 아이들도 오랜만에 학교에 와서 모두 당황스러운 순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4학년 이 학교에서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3년 동안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 오프라인 이 생소한 거죠. 사람 만나는 법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코로나19로 3년 동안 온라인 교육을 했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대비하지 않았어요. 4학년이 결정적 시기라고 하거든요. 1학기, 2학기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게 필요하죠. 사람책을 통해 초등학생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작은 이바지가 되지 않을까요.”

- 박순철 (하리쌤)

contents

- 1장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워짐
- 2장 사감행-역지사지 역지감지 역지행지
- 3장 우보천리,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

keywords

- #교육 #공도음 #청주교대
- #부산대경제학사 #중대 #교육학
- #건축공학 #하리쌤

story



저는 부산이 고향이고요. 가정적인 집안에서 밥투정 한 번 하지 않고 자랐어요. 누가 해주는 밥을 먹는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지구상에서 어머니를 가장 사랑해요. 어머니는 20살에 결혼해서 21살에 저를 낳았어요. 저를 키우면서 삶의 대부분을 희생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어머님이 제게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이에요. 제가 지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게 어머니의 말씀 때문이지 않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역사학을 좋아했어요. 사람에게도 많은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를 찾아가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저는 ‘순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순수를 지키면 아름다우니까요. 그런데 모든 게 가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걸 파악하는 데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진지하고 순수하게 바라봤기 때문이죠. 순수함이 무너지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첫사랑에 대한 의미, 첫 공부에 대한 의미,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회를 바꾸기 위해 어떤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 묻고 본질에 다다르지 못하면 상처받고 방향하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괜찮다고 스스로 다독여 줄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끊임없이 자신에게 채찍질했어요. 이만큼 한 것도 충분한 변화고 성장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채찍질하며 살았어요. 요즘 힘들어하는 젊은 세대가 자신을 먼저 다독이고 자기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박순철 사람책

‘유목민, 하리(Hari)쌤의 삶과 교육’

1장,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워짐

지금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390만 년 전 동아프리카 나무 위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이상기후로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약한 존재이니 길을 따라 계속 이동했죠. 사하라 사막을 건너고 유럽에 가고, 추운 시베리아를 거쳐서 한국, 안성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390만 년 동안 살아 있는 존재거든요. 존재 이유의 의미를 물어보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술한 경험을 거치고 우리 안에 유전자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넌 11살이 아니라 390만 년 더하기 11살이야.”라고 말하곤 해요.

우리는 어떤 장점이 있기에 아직 살아 있을까요?

부모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술한 조상 유전자가 강점을 가지고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의 강점이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남아있는지, 묻다 보면 꿈과 연결이 돼요.

KBS <도전 골든벨>에 김수영 씨가 나왔는데, 사실 굉장한 비행 소녀였어요. 그런데 도전 골든벨에서 우승하고 연세대 영문학과에 입학했어요. 좋은 외국



계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다가 갑자기 유방암에 걸리고 말아요. 김수영 씨는 스스로 왜 화려한 시기에 추락할 수밖에 없는지, 인생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생각했어요. 김수영 씨는 영국 런던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까지 많은 나라를 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저는 그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꿈은 소중하잖아요. 390만 년 전부터 나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아직 살아 있으며 이번 생에 어떤 꿈을 꽃피울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해요.

노메딕은 인간이 계속 이동하고 유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나의 390만 년 동안의 의미를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마드라는 명사 대신 노메딕이라는 형용사를 썼어요.

전 총 일곱 군데 대학에 다녔어요. 세 곳은 마무리를 못 했는데, 처음 전공은 경제학이었어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국제경제학을 전공했어요.

저는 현대그룹의 현대상선에서 상사맨으로 일을 했어요. 대학 다닐 때부터 워낙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 보육원이나 야학에서 활동했어요. 3년 정도 현대



그룹에 다니다 보니 우리가 배운 대로 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현대그룹 계열이 다 분리되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현대 상선인데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 최대, 최고의 기업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IMF가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원래 꿈꿨던 선생님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6월 15일에 사표를 냈어요. 사직서에 백창우 님의 ‘여보게, 그렇게 말하지 말게’라는 시를 쓰고 나왔어요.

5개월 동안 수능 공부를 하고 교대에 입학했어요. 처음에 미술교육을 선택했는데, 여학생 42명에 남자는 저 혼자였어요. 1년 생활하면서 한쪽 문화만 있는 것이 참 힘든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대학 혁신지원사업 3유형
해교육 강사 양성 과정
7월 26일(월) 장소 : 동남보건대학교 새명기념관 7층 702호



교대에 다니다 보니 계속 학구열이 생겼나 봐요. 사회교육을 공부했고, 방통대 영어 영문학을 공부했어요. 그 뒤엔 다문화 교육에 관심이 생겼어요. 다문화 교육과의 만남이 노메딕 하리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박사라면 아이를 잘 키워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유아교육과 학사 과정을 마쳤어요.

그동안 너무 인문학 위주 공부만 했다는 생각이 들어 건설적인 것을 찾다가 마지막으로 건축공학과 학위를 취득했어요. 건축공학은 학점은행제로 공부했는데 늦은 시간에 주말마다 공부하는 반이었는데도 가장 재밌었어요. 건축공학을 공부한 이유는 유럽 골든 비자 제도 때문이었어요. 시골에 있는 집을 인수해서 5년인가 보유하면 유럽 시민권이 나와요. 그 집을 사서 고친 다음 인생 학교를 열고 싶었어요. 선생님들이 마지막으로 미래 인생 계획을 세울 때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럴 겨를이 없잖아요. 포르투갈에 인생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했어요. 포르투갈로 정한 이유는 유라시아 가장 끝자락, 우리나라 반대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매일 해지는 모습을 보며, 마무리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외국 교육을 배우고 싶어서 교직의 반 정도는 외국에서 보냈고, 마지막으로 세종시에서 장학사를 했어요. 세종시는 전국구 장학사 시험이 있어서 한 건데, 저랑 안 맞더라고요. 사표를 내고 지금은 기간제 교사로 전국을 헤매고 있어요. 작년에는 경주에 있었고요. 저는 유·초·중·고등학교 교육뿐 아니라 이화여대에서도 4년째 강의하니, 유치원부터 대학교, 학부모 교육까지 교육 전반에 발을 다 얹어놓고 있네요.



2장, 사감행-역지사지 역지감지 역지행지

들을 청(聽)을 보면 귀가 있고, 밑에 왕자가 있거든요. 귀를 왕처럼 크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열 십(十)에 눈 목(目)이 있어요. 10번 정도는 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10개의 가능성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듣는다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놀라운 건 집 업(广)을 없으면 시청, 교육청에 들어가는 청(廳)이에요. 이 한자의 의미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왕처럼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10번 정도 우리가 잘못된 게 없나 살펴보고, 시민과 한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청과 교육지원청이 해야 할 일이에요.

교육하면 꼭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해요.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지, 가치 있는지, 도덕적인지. 저는 세 가지에서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명쾌하

게 자기만의 가진 믿음이나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나 아렌트가 1964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악은 부조리라고 봐도 돼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대요. 저는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 생각의 유능을 낳고, 생각의 유능이 말하기의 유능을 낳고, 말하기의 유능이 행동의 유능을 낳는다고 말해요. 교육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역지사지, 역지행지, 역지감지가 필요해요. 생각을 다른 사람 위해서 하고, 마음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교육이 오직 자기 성공을 위해 달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의대에 가려면 0.1%에 들어야 하는데 경쟁을 뚫고 의사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사법고시를 할 때 1천 명 내외를 뽑았고, 마지막 사법시험에 1,400명 정도 뽑았어요. 지금 로스쿨 가려면 엄청난 돈을 내고 가야 하는데, 대부분 권력자 자녀가 많고, 나오는 인원도 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30대 초반에만 로스쿨을 겨우 갈 수가 있더라고요. 할 수 없다는 제안을 거는 게 교육인가요? 저는 한나 아렌트 선배님을 학교 교육에 초대하고 싶어요. 우리는 악의 평범성을 학교 안에서 전파하고 있어요. 이런 걸 알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안성은 남부지역 교육혁신지구인데 시민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3장, 후보천리,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

2030년에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2040년에 당신의 자녀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청년을 모셔 오기 위해 지금 대학 모집하는 상황을 보면 지금 시대는 ‘청년 전쟁’이에요.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지방대가 문을 닫고 있어요.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15년 이후에 안성에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시스템이 필요해요. 저는 부산인 고향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졸업하고 나니 직장이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경기도에는 초등학교 교사를 연간 1,300명 뽑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온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데 반대로 안성은 15년 뒤에도 청년들이 잘 살도록 먹거리가 있고 공부할 만한 여건이 갖춰져 있나요? 교육받은 학생들이 다시 안성에 와서 살고 싶어져야 하거든요. 파라그 카나의 《대이동의 시대》라는 책을 보면 마지막 질문이 ‘2050년 인류의 지도는 어떻게 변할까?’예요. 한 25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먼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곧 아시아의 시대가 올 것 같지 않나요?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아시아는 여전히 청년이거든요. 안성에도 다문화 가족이 많아요. 그런데 대책이 있는지, 청년들이 다시 안성에 돌아와서 살아갈 여력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저는 올해 경기도 기간제 교사를 마무리하는 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주하고 전라도를 못 가봤는데, 전국을 다녀보니 문화가 참 다르더라고요. 작년에 일 년 동안 경주에서 수업 지원 교사를 했어요. 16개 학교 46개 학급에 선생



님이 없을 때 수업해 주는 거예요. 저랑은 참 맞는 일이었어요. 경기도는 갑자기 선생님이 없을 때 선생님이 품앗이로 나눠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 스스로 자기를 개발할 수 있고 성장할 기회였어요.

전 연금이 나오면 배낭 메고 외국에 나갈 생각이예요. 체력이 있을 때 1년 정도는 전 세계 박물관, 미술관에 가고 싶고, 1년 정도는 전 세계 아름다운 곳을 다녀보고 싶어요.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 1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3년 살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버나드 쇼와 카잔차키스를 소개하고 싶어요. 버나드 쇼는 영국 유명한 철학자인데,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로 묘비명이 시작해요. 카잔차키스는 그리스 대문우인데, 묘비에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두 분을 좋아해요. 두 분에게 바라는 바가 없고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도덕, 사회, 물리를 바라지 않으려고 해요. 두렵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인 걸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개방적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물 안 개구리가 바다를 모르는 건, 자신이 사는 곳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인데 안성에서만 구속되어서는 안 돼요. 안성도 보편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름벌레가 얼음을 모르는 건, 한 시절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겨울을 경험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구근선비가 도라는 말을 모르는 것은 잘못된 믿음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안성의 교육은 여전히 닫힌사회에 가까워요. 닫힌사회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강하죠. 안성이 열린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주의를 인정하면서요. 물론 개인주의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경쟁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삶이 390만 년 더하기 알파의 삶이라는 것,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끊임 없이 보다 나은 성장을 위해 나아갔으면 해요.

저도 끝까지 교육을 위해 ‘일신우일신’하고 ‘우보천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권

전준기 사람책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1964년 3월 7일 안성 도기동에서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안성토박이입니다. 집이 원래는 잘 살았는데, 금광면에서 부모님이 땅을 팔아 열한 가정에 나눠주고 낙원동으로 이사 왔어요. 지금 개산철물점 자리에서 슈퍼를 했어요. 1964년에 도기동으로 이사 오면서 제가 태어났죠.

‘배워서 남 주자’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는 자원봉사가 제일 재미있어서 하루에 한 분이라도 도와드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가장 보람된 일이고, 제 삶의 낙이에요.”

- 전준기 (안성시 장애인 조직국장)

contents

- 1장 뽕소니 사고 인생
- 2장 결혼 성공의 비결
- 3장 봉사봉사 자원봉사

keywords

- #안성토박이 #자원봉사
- #배워서남주자 #백성초등학교
- #안성중학교 #뽕소니사고
- #기적의사나이

story





전준기 사람책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1장, 뽕소니 사고 인생

저는 백성초등학교, 안성중학교를 졸업했어요. 도기동에서 안성중학교까지 4km 정도 거리인데, 당시에 비포장도로가 많았어요.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안성중학교에서 내려오는 길이 비탈길이었어요. 신나게 내려오며 잠깐 한눈 팔다가 축구 골대에 머리를 부딪혀서 기절했어요. 쉽게 말하자면 뇌진탕이었어요. 자전거랑 저랑 분리가 되면서 저는 나가떨어졌죠. 누군가 운동장 의자에 저를 눕혀놨어요. 일어나보니 이슬이 내리고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더라고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자전거를 탈 땐 앞을 잘 봐야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8남매 중 막내였는데, 집이 참 가난했어요. 도기동에 냇가가 많았는데, 흙을 40cm 정도 걷어내면 왕사랑 예쁜 모래가 나와요. 목장갑을 끼고 모래를 파서 경운기에 수북이 쌓았어요. 모래를 갖다 팔면 한경운기에 500원씩 줬어요. 당시 500원이면 큰돈이거든요. 그걸 계속하다 보면 하루에 경운기를 20번 채울 수 있으니, 만 원을 버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곡괭이질과 삽질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운기 사고가 났어요. 경운기를 보면



스타칭이라고 리을 비슷하게 생긴 걸로 돌리거든요. 겨울에 그게 빠져서 사고 난 적이 있어요. 그때 부딪힌 자리에 이가 없어요.

한경대 1학년 때 학교 끝나고 내려가는데, 경찰차가 저를 치고 도망갔어요.

‘하나님 저 돈이 없는데, 경찰이 자전거를 치고 가서 나는 다치고 자전거는 박살이 났어요. 도망간 경찰 아저씨가 다시 오게 해주세요.’

저는 크리스천이니까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 아저씨가 다시 오더라고요. 그때 전 의료원에 입원했는데 아저씨가 새 자전거를 사 오셨어요. 몸은 곧 회복되었고요.

1985년 5월 3일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운천리에 155mm 곡사포 포병으로 입대했다가 1987년 9월 17일에 제대했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전라도 광주 김 병

장이 제 허리를 때려서 꼬리뼈 쪽이 골절됐어요. 백병원에 후송됐죠. 엎드려서 기어다니며 짬밥을 먹었어요.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울 정도였어요.

자꾸 사고가 나니까 제발 이제 사고 그만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대하고 직장을 알아보려고 친구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금광면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택시가 저를 치고 달아난 거예요. 어깨하고 팔을 많이 다쳐서 의료원에서 오래 치료받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돈도 별로 없었고 부모님이 아니면 걱정할까 봐 애기도 못 했어요. 친구는 다행히 덜 다쳤죠.

1989년에 한의원에서 약사 생활을 하며 세 군데에서 근무했어요. 송탄에서 일할 때 제가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군인 아저씨가 차로 저를 치고 달아난 거예요. 그 차가 기아 세피아라는 차였는데, 검은색이었어요. 저는 넘어져서 다치고 저를 차로 친 사람은 못 잡았어요. 송탄 신경외과에 2주 입원해서 지내다가 퇴원하려는데 군인이 찾아왔어요.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외모도 별로고, 자랑할 게 없어서 기도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치료비를 내더라고요.

1991년에는 제가 의료원에 사무장으로 입사해서 자판기와 매점 식당 관리를 했어요. 그때 농협 앞에서 엘란트라 승용차에 사고를 당했어요. 차에 남자 2명, 여자 2명이 타 있었는데, 천안 쪽으로 도망가다가 사고가 났나 봐요. 저한테 다시 돌아오라고 기도했는데 2명은 장애인이 되고 2명은 사망했대요. 불안한 상태로 운전해서 그랬나 봐요. 큰 사고라 뉴스에도 나왔어요. 찾아오면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큰 사고로 이어져 버렸더라고요.

마지막 사고는 우체국 집배원 일을 할 때였어요. 제가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336-3번지에서 4년 정도 살았어요. 평택시 진위면에도 복남동이 있어요. 안성에도 복남리가 있잖아요. 제가 개인이 하는 별정 우체국 집배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작은누나가 노처녀였는데 나드리 화장품 회사에 다녔거든요. 13평 방 두 개짜리 집이라 누나와 방을 하나씩 쓰고 거실을 공동으로 썼어요. 제가 아침 7시에 배달을 시작해서 끝나면 저녁 8시 반쯤 돼요. 오토바이 한 1,400번 정도를 오르락내리락하죠. 택배뿐 아니라 등기, 소포, 편지도 있으니깐요. 1,400곳 가는 순서를 전부 외워야 해요. 학교에 들어갔다 나와서 아파트에 들어갔다 나오고 어느 집에 들어간다는 것을 차례대로 외워야 했어요. 이사 가고 이사 오면 다 다시 지우고 암기해야 했어요. 우체국 국장도, 아내도,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일이 집배원 일이거든요. 제 생각에 3대 업종이 택배, 집배원, 시청 도로 보수원 같아요. 제가 여러 직업을 경험했는데 집배원 일 할 때 가장 힘들었어요. 그 당시 소나타 운전자가 저를 쳤는데 겨울이라 점퍼가 미션에 걸려서 저를 20~30m 끌고 갔어요. 기절하진 않았지만 뼈가 다치



고 피가 나는데도 구급차는 올 생각도 안 했어요. 소나타 운전자는 음주 상태라 겁이 났는지 저를 차에 집어넣고 문이 안 닫히니까 막 발로 찼어요. 제 몸을 막 구겨 놓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발성 골절이라 폐하고 심장을 많이 다쳤어요. 허리, 왼쪽 무릎, 오른쪽 대퇴부, 양쪽 어깨도 복합골절이었고 35개 정도 뼈가 골절이 되었어요. 자가용을 타고 평택 박애병원 응급실에 가게 됐어요. 흉부외과 권우석 교수님이 2년 동안 휴가도 못 갈 정도로 저를 수술해 주고 치료해 주셨어요. 핀을 6개 박았어요. 주사도 여러 개 맞고, 수혈도 많이 했어요. 제가 다쳤을 때 딸이 3살이었고, 아내는 아들을 임신한 지 한 달째였어요. 임신 중인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딸을 데리고 도망가고 싶었대요. 아내가 잘 먹어야 하는데 제 병간호하느라 힘들었죠. 나중에 아들이 정말 개구리만 하게 작게 태어났어요.



저는 18일 정도 중환자실에 있다가 8% 확률에서 살아난 기적의 사나이예요. 남들은 저보고 다 죽는다고 말했는데 살았잖아요. 제가 1년 정도 휠체어를 탔어요. 목발이나 보행기 연습도 많이 했어요. 3년 정도 재활하면서 동수원병원, 수원 성빈센트병원에 다녔어요. 왜냐하면 머리부터 다 다쳤거든요. 그때 책임보험에서 1억 원이 나왔어요. 1,111만 1,111원, 일원까지 불우이웃돕기를 해보자고 마음먹고 좋은 일을 했어요. 남은 돈 중, 큰 형 빚 4,600만 원을 갚아줬어요. 그때 형이 고맙다고 제 앞으로 논 350평을 해줬어요. 그래서 소방서 앞에 제 눈이 있어요.

사고 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새마음교회 최창우 목사님, 임태분 사모님이에요.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에요. 옆집에 사셨는데 먹을 것을 챙겨주고 매일 기도 해주고 아이 잠도 재워주셨거든요. 큰형과 큰형수님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병문안 와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구미에 계신 장모님도 사골을 고아서 가져다주셨고요. 우리 사위 빨리 나오라고 챙겨주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는 집을 지어서 장모님도 모셨어요. 제 주변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분이 많았어요. 7번의 사고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도움과 덕으로 잘살고 있는 거죠. 교통사고로 장애인 3급을 받으면서 장애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고, 다른 사람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성시 장애인 조직국장을 하면서 봉사하고, 집수리 팀장을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해요. 교통사고로 몸은 다쳤지만, 상처는 치유되는 거고요. 정신적 상처보다 육체적인 건 4개월이면 거의 회복이 되더라고요.

2장, 결혼 성공의 비결

제 인생에서 결혼이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키는 작지만, 얼굴은 잘생긴 편이거든요. 제 캐치프라이드가 ‘키는 작지만, 마음을 넓게 쓰자. 배워서 남 주자.’예요. 어머니와 아버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웃에게 좋은 것을 줘라, 너는 나쁜 것을 먹고,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 아무리 가난해도 담 뛰어넘지 말고 차라리 배고프면 물을 먹어라. 항상 남을 도와주면 네가 잘될 거야.’ 저는 부모님 뜻을 따라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고 있어요.

군대 제대하고 좋은 자매를 소개받았어요. 날씬하고 예쁘고 귀엽고 짹짹했어요.

‘안성예, 대한민국에 저런 아름다운 자매가 있었어?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순결 주의자였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뽀뽀도 안 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뱀처럼 지혜롭게 살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순수하게 결혼하고 아내랑 뽀뽀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자매를 만났는데 참 잘사는 집안이었어요. 가족은 가게 운영하고 우리 집보다 잘 살고 인격도 관찮았는데 문제는, 만나면 자꾸 뽀뽀하자 그러고 자꾸 옷을 벗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결혼하기 전까지 뽀뽀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왜 안 되냐고 묻기에,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설득했어요. 다음번에 만났을 때 맛있는 음식이나 옷, 테이프, 책 등을 사줬어요. 옛날에는 테이프 선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자매가 조카들 재우고 나면 뽀뽀하자고 하면서 제 앞에서 옷을 벗어요. 내가 옷 입혀주고 도망쳐 나오기를 한 8번 했나 봐요. 그러다가 장모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박을 사 들고 장모님 댁 앞에서 내렸

는데 수박이 칼로 자른 것처럼 절단이 되는 거예요. 장모님 얼굴을 보었는데, 장인어른이 밭에 가셨다기에 가서 따님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제게 집 있냐고 묻더라고요. 총각이라 없다고 했더니 당신 같은 거지에게 시집을 못 보낸다며 다른 사람을 찾아보래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많이 울면서 나왔어요. 집이 없고 가난하면 결혼 못 하는구나, 나는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라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돈을 열심히 모아서 예쁜 자매랑 결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9, 10개월쯤 지나서 또 다른 자매를 소개받았어요. 정말 착하고 아름다웠어요. 전도연처럼 생겼고 김희애 분위기, 전인화 얼굴, 고현정의 다리를 가진 분이었어요. 하나님께 이분과 결혼하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처음 만난 분과 너무 달랐어요. 통통하고 덩치도 있는데 동글동글하고 마음이 구순구순하고 아주 예뻐는데, 문제는 데이트 끝나면 자꾸 어딜 가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용인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태권도 선수, 사격 선수뿐 아니라 운동도 많이 했으니, 당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제가 용인 정신병원 박종문 원장님께 갔더니, 결혼식을 올리면 우울증이 빨리 낫는대요. 명동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냉장고, 세탁기, 장롱, 선풍기 등을 장만했어요. 그런데도 병이 낫질 않아요. 원장님이 기분 전환할 수 있게 신혼여행으로 설악산에 다녀오라는 거예요. 아내가 나올 수 있다면, 뭐든 했어요. 우울증이 있으니, 뽀뽀도 못 하고 손만 잡은 상태였어요. 혼인 신고 후 정신병원에 1년 1개월쯤 다녔어요. 당시 평택에서 살았는데, 아내가 창고에서 제초제 그라목손을 3분의 1이나 마셨대요. A4용지 2장 분량으로 유서를 써놨어요. 성심병원에서 아내가 죽어가니 빨리 오라고 했어요. 일하다 말고 택시 타고 가

는데 병원 관계자가 갑 티슈 20각을 사 오라기에 들고 갔어요. 아내가 토하는데 창자가 푸른색으로 녹아 나왔어요. 지금은 담담하게 말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떨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색이 파래지다가 나중에 검은색으로 변색이 돼요. 아내한테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전준기 씨처럼 순결한 사람이 아니래요. 저를 만나보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라 본인같이 순결하지 않은 사람은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서 지옥에 가지만 나를 용서해 주고 전준기 씨는 착하고 귀엽고 예쁘고 순결한 분을 만나 행복하게 살라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하루 만나질 만에 사망했어요. A4용지에 아내가 쓴 유서에는 평택에서 등산하다 스님한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순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우울증이 왜 왔는지 몰랐었죠. 목사님이거나 스님이거나 수녀님이거나 신부님이거나 모두 성직자잖아요. 정말 순수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 본 거예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결혼생활이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9살이던 해, 설날에 셋째 형이 여자를 소개해 준다고 구미로 내려오래요. 결혼할 생각 없다고 말했는데 형이 오라면 오는 거라고 해서 구미에 갔어요. 여자를 만나기로 한 카페 이름이 ‘양시’, 우러러 모신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혈액형 A형에 키가 167cm래요. 제가 일 년 동안 165~167cm에 A형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과 맞으니, 저와 결혼해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당시에 여자는 신홍목재소 사장님, 회사 부장님, 공장장님, 이사님 이런 사람들만 만나고 있었어요. 여자



가 키도 크고 예뻐거든요. 지금 봐도 떨려요. 볼수록 아름다워요. 장인, 장모님께 인사드리면서 제가 키는 작지만 기독교 신자이고, 술이나 담배, 커피, 콜라를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실하고 근면해서 손에 물은 묻히겠지만 고생은 덜 시킬 테니, 따님을 주시사 했어요. 목숨 걸고 살아갈 테니 믿어달라고 말하며 절을 했죠. 장모님이 저보고 화끈하다며 결혼 승낙을 해줬어요. 그때 금우산 등산하고 처가에서 자고 왔어요. 1992년 1월 26일에 만나 9월 26일 대전 모 모텔에서 약혼반지를 줬어요. 저는 12월 26일 결혼에 성공했어요. 구미 목화예식장에서 결혼하고 평택에 왔다가, 고향인 안성으로 와서 살게 되었어요. 딸, 아들은 지금 31살, 29살이고요. 둘 다 교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지만 결국 선택한 것이 이긴 거예요.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3장, 봉사봉사 자원봉사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 11명을 경운기에 태워서 용인 남사에 있는 선한사 마리아원에 갔어요. 백여 명이 생활하는 장애인 시설인데, 목사님 소개로 간 거예요. 저는 크리스천이라 저와 친구들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라면, 학용품 등을 사가서 선한사마리아원에 있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빨래를 해줬어요. 아이들과 포옹도 많이 하며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눴어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햇볕에 널어 둔 빨래가 마르니까 개어서 정리까지 했어요. 남자 원장님이 “네 이름이 전준기야? 안성에서 용인 남사까지 경운기를 끌고 왔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무척 엄하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면 작대기로 막 때리셨어요. 그런데 원장님은 진짜



은유하시고 겸손하셨어요. 마치 아버지처럼, 형처럼, 제 어깨를 두드려 주고 안아주셔서 참 감사하고 기뻐요. 자존감도 생기고 진짜 부성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봉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원봉사를 통해 덤으로 사는 인생을 조금씩이라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봐요. 주변에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외국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 찾아가서 손을 잡아 줘요. 전 마사지 강사라 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치유의 은사, 긍휼의 은사, 사랑의 은사 세 가지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볼 때 참 불쌍하다는 생각, 저 사람도 장점이 있고 배울 점이 있다는 것. 저 사람은 무엇을 해주었을 때 가장 행복해할지를 생각해요.

저는 여름휴가 때 장애인들 사는 집에 바퀴벌레 잡으러 가요. 훈증제 사서 벌

레가 나오지 못하도록 신문지와 비닐로 틈새를 막고 몇 시간만 소독해 주면 나방, 바퀴벌레, 쥐 등이 다 죽어요. 청소 싹 해주고 나오면 목욕한 것처럼 개운하고 재밌어요. 봉사의 기쁨은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저는 5시 20분에 일어나서 12시에 잠을 자요. 시간을 분 단위로 나눠서 24시간을 240시간처럼 알차고 실속 있게 보내려고 해요. 제 목표가 200세예요. 제가 60세니까 이제 140년 남았어요. 안 죽는 사람은 세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 두 번째는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 세 번째는 욕심이 없는 사람. 저는 보개면에서 11년 동안 밑반찬 배달을 했어요. 화요일 점심때마다 하는데 한 번은 딸을 데리고 갔어요. 딸이 옆에서 보더니 인생을 헛산 것 같다며 막 울었어요. 우리는 집에 물이 안 새는데, 아빠한테 고맙다는 말도 못 하고 살아서 미안하대요. 저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책 읽고 책이나 신문 보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 주고 싶었어요.

제가 자원봉사 하면서 돈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10원도 안내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나뉘요. 제가 어제 행주 100개, 달걀 6판을 나눠드렸는데 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참 행복해요. 줄 수 있을 때 줘야 해요. 나중에는 주고 싶어도 못 주거든요. 돈은 돌고 돌아야 하는데 날 위해 먹거나 쓰는 돈, 남을 위해 나눠준 돈만 내 돈이에요. 나머지 돈은 남의 돈이에요. 공수래공수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남에게 쥐보세요. 칭찬받고 잠 잘 오고 기분 좋아요. 소화도 잘돼요. 지금부터 하세요. 시간은 똑같이 24시간이에요. 지금 봉사 안 하면 나중에도 못 해요. 지금 안 하면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늦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오늘 해야 하는 것처럼 봉사도 지금 하십시오.

5권

임상철 사람책

‘안성에 미친 무수 이야기’

“무수는 ‘무’의 안성지방 사투리예요. 제 키가 178cm인데 중학교 2학년 때 1년 새에 커버렸거든요. 별안간에 키가 커버려서 친구들이 저를 무수라고 불렀어요. 제가 무수라는 말을 계속 쓰다가 별명에 의미를 부여해 보자고 생각했어요. 세상을 살 때 수 쓰지 말고, 잔피 부리지 말고 살자는 의미로 만들었는데 무수(無數)라고 하니 주변에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두 아들 별명도 달랑무, 흥당무랍니다.”

- 임상철 (안성사회연구회 회장, 덕봉서원 사무국장, 양성독립운동역사마을 사무국장)

contents

- 1장 무수는 왜? 돈 버는 일보다 봉사활동이 우선인가!
- 2장 지역사회, 재미있게 배워야 오래 간다
- 3장 잘 놀고 잘 먹고 삶이 즐거운 안성을 만들고 싶다

keywords

#무수 #늦둥이 #안법중 #안법고
#안법고동문사무국장 #향토사
#지역사 #향토사학자 #봉사활동

story





德峯祠宇

庚辰十一月九日
宣統

임상철 사람책

‘안성에 미친 무수 이야기’

1장, 무수는 왜? 돈 버는 일보다 봉사활동이 우선인가!

저는 아버지 52세, 어머니 45세에 태어난 늦둥이예요. 3남 3녀인 6남매의 막내로 자랐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소풍에 부모님이 따라오시면 정말 창피했어요. 친구들이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어.”라고 하니까 어린 마음에 싫었거든요.

큰형님이 올해 89세, 작은형님이 85세, 그 아래 누님들 있고 제가 막내라, 귀여움을 받고 자랐어요. 제 이름과 제 아들 이름을 만형이 지어 주었어요. 만형이 군대 제대했을 때가 24살인데, 집에 오니 어머니가 저를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만형이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큰형님, 작은형님이 안성에서 공직 생활을 했는데, 공무원 동기 중에 제 친구 아버지가 많았어요. 친구들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니까, 너도 나한테 형님이라고 해.”라고 농담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안법중·고를 나왔는데, 안법중 1학년 말에 사귀 친구 2명이 있어요. 중학교 2년, 고등학교 3년 동안 계속 같은 반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자연반을 한번 뽑아서 반 편성 없이 쪽 운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삼총사처럼

지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학창 시절 앨범 다섯 권에 셋이 찍은 사진이 대부분일 정도예요. 그런데 친구 둘 다 군대 다녀와서 한 명은 26세에 신부전증, 다른 한 명은 28세에 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중·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술잔 기울이며 학창 시절 대화를 나눌 때 저는 추억을 이야기할 친구가 없어진 거죠. 세상 살면서 네 친구 내 친구 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동창 모임, 상호회, 경조사에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동창회 모임을 앞장서서 결성해서 1980년대 후반 안법중·고 26회 동창회를 결성하고 10년 정도 맡뚝 회장을 맡았어요. 초등학교 동창회도 만들어서 회장을 했었고 1994년부터 안법고 총동문회 총무(사무국장)를 맡았어요.



“너는 돈 버는 일보다 왜 봉사활동이 먼저야?”

제목에도 써 있는 이 말은 주위 친구들과 가족이 제게 먼저 묻는 말이에요. 제가 돈 되는 일보다 봉사활동을 우선시켰거든요.

저는 군대 제대 후 아남 한국나쇼날전기(현. 아남전자)에서 과장으로 시작해서 지점장으로 일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행정병을 하며 차트 글씨 쓰는 걸 배웠어요. 제가 향토예비군 훈련 간 사이에 안식구가 거래처에 입사했는데, 제 장부 필적을 보고 누가 썼는지 물어봤대요. 그런데 옆에서 임상철이라는 사람인데 열흘 후에 온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안식구가 제게 관심이 있었대요. 안식구가 안성 공도 사람인데 저에게 “과장님, 우리 집에 도장 좀 가져다주실래요?”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길이니깐 멋모르고 집에 가져다줬어요. 알고 봤더니 저를 식구들에게 선보인 거예요. 그렇게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당시 안식구가 22살이었고, 저는 27살이라 동생처럼 생각했지, 여자라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당시에 육 남매 중 안성에 사는 건 저뿐이고 형님들은 서울이나 인천 등 외지에 나가 계셨어요. 제가 서울 본사로 발령이 났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안식구는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으니, 서울로 가자고 했어요. 일부러 아이들을 서울로 전학 많이 보낼 때였거든요.

부모님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 싫어하셨어요. 제가 막내이지만, 부모님이 마음에 걸려서 서울로 가는 것을 포기했어요. 저는 1987년에 회사를 그만둔 뒤,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당시에 가전제품과 가장 빨리 접하는 비디오테이프 대여점을 운영했어요. 그러다 그만두고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1980년대 후반이니 안성에서 그런 사업이 시기적으로 너무 일렀던 거죠. 안성 최초 편의점 운영도 했는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저보고 너무 앞서간대요. 어느 선배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냉장고가 보급되지 않은 시절에 냉동 만두를 개발한 분이 너무 일찍 손을 댄 탓에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자영업 몇 번 하다 보면 자본이 없어지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서울우유 대리점 하면서 큰 부도가 났어요. 아파트고 뭐고, 다 날렸어요. 현재 안성 보령 약국 건물 주인이 친구인데, 제 사정을 알고 약국 자리를 무상으로 빌려줬어요. 그 자리에서 6년간 분식점을 하면서 빚을 다 갚았어요. 안식구가 아이들 교육이나 아파트 장만을 먼저 하자고 했는데 제가 빚부터 갚자고 해서 다 갚고 나왔어요. 버스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장사가 잘 안되고, 제가 다리를 다쳐서 6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하게 되어 가게 문을 닫았어요.



2장, 지역사, 재미있게 배워야 오래 간다

예전에는 향토사라고 했는데 요즘엔 지역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저는 향토사학자가 꿈이에요. 한국사는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만, 향토사는 지역 주민이 관리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아요. 안성문화원에 계셨던 고(故) 최병찬 원장님, 김태원 원장님에게 향토사에 대해 배웠고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문화 활동 중에서도 각종 공연에는 관심이 많은데 향토사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안성시에서 안성장터 활성화를 두고 고심하고 있어요. 먼저 향토사나 지역사회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아카이빙 작업을 해야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방안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허생전》 배경에 안성장터가 나온다는 말은 하지만 뒷이야기는 전혀 몰라요. 안성에 유언호라는 분이 계셨어요. 중앙대 넘어가는 길에 묘가 있거든요. 연암 박지원보다 7살 많은 분이예요. 박지원이 허생전을 쓰면서 안성 장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하고 인연이 있거든요. 박지원이 당파싸움에 밀려서 황해도 금천 연암골로 피신을 갔어요. 그래서 연암 박지원이라고 부르죠. 그때 유언호가 개성 유수를 지원해서 십수 년 동안 박지원을 도와줬어요.

둘이 친하니까 금강산 유람도 같이 다녔대요. 유언호가 보개면 신안리에서 동안 강당을 운영했는데, 박지원이 자주 놀러 왔어요. 동안 강당에서 박지원이 글을 쓰며 안성장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동안 강당 건물은 1922년에 안법고등학교 공안국(양투안 공베르) 신부가 사서 안성 성당을 지었는데, 옛날 구포동 성당이라고 불렀죠. 현재 안성 성당 한옥 건물이 바로 그 건물이에요. 제가 2007년에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1, 2년 지나 보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원 회원들과 답사가면 설명해야 하는 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안성 근처에는 역사나 사학과가 없어서 2014년에 방송통신대학 문화교양학과에 입학했어요. 4년 만에 졸업했는데 제 환갑일 때였어요. 부모님 연세가 많아서 대학 진학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버킷리스트로 환갑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살면서 제가 좋아서 선택한 직업이 없었는데 문화원에서 일하며 향토 사학에 매력을 느꼈어요. 고마운 건, 대학 진학한다고 했을 때 안사람이 흔쾌히 찬성했다는 거예요. 돈보다 학문 연구에 치중하는 일이니, 안사람 지원 없었으면 못 했죠. 2016년부터 교육에 적극 참여해서 역사 교육 지도사, 안성 교육 지도사 등 각종 자격증을 땀어요. 옛날에, 학교에서 배운 역사를 떠올려 보니까 참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있게 가르칠 방법을 찾다가 국경일로 배우는 한국사나 지역사, 건축물로 배우는



역사교육 등을 생각했어요.

국경일로 배우는 한국사를 예로 들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해서 10월 9일이 한글날이잖아요. 세종대왕이 온 국민에게 한글을 반포해서 가르친 정신을 이어받자는 의미로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한 거예요. 5월 15일은 세종대왕 태어난 날로 연계시켜야 재밌잖아요. 7월 17일 제헌절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 날이에요.

건축물로 배우는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건축물에 8개 등급이 있어요. ‘전/당/합/각/재/헌/루/정’인데, ‘전’이 제일 높은 건물을 말해요. 대웅전이 불교 건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라 ‘전’을 붙였잖아요. 궁궐에도 근정전, 인정전 등 이름이 있어요. 그 밑에 사는 분이라서 ‘전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궁궐 한가운데에 중전이 사는 건물을 지어주기 때문에 ‘중전마마’라고 부르죠. 동쪽에는 왕자가 태어나면 건물을 지어서 ‘동궁마마’라고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본인에게 전하라고 부르라고 할 수 없으니 네 번째 ‘각’을 따서 각하라고 부르고 했어요. 조선 건물 중 업무 보는 건물을 규장각처럼 ‘각’을 붙였거든요.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 각하라는 말을 썼죠.

‘정’은 1층 건물, ‘루’는 2층 건물을 말해요. 안성 봉산로터리에 고려때 흥건적을 물리쳤다는 극적루(克敵樓)가 있어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역마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역참제도가 있었어요. 요즘 말로 어디 갈 때 ‘한참 간다.’라는 말을 써요. 역과 역 사이를 ‘한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역이면 두참, 세 역이면 세참이라고 말해요. 역에 가서 마패를 내밀면 말 숫자대로 빌려주거든요. 그러니 거기 말들은 전국을 다 떠돌아다니죠. 그래서 역마살이 꺾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저는 생활 속에서 지역사, 향토사를 재미있게 엮고 싶어요.

‘위귀인이 위호인난(爲貴人易 爲好人難)’

양성덕봉서원에 조선시대 원장님 14분 중 다섯 번째 원장님이 ‘도암 이재’에
요. 이재 선생이 과거 급제하고 집에 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기쁨의 눈물을 흘
리며 한 말이 있어요. 위귀인이 위호인난(爲貴人易 爲好人難), 즉 높은 사람
이 되기는 쉬워도 좋은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는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 되라
는 말이지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좀 바보 같아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따지고 살면 사
람끼리 벽이 생기고 거리가 생기잖아요. 안식구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 중 하
나가 왜 바보처럼 사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손해 보고 사니까 마음이 편하
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도움받는 경우도 많아요.

3장, 잘 놀고 잘 먹고 삶이 즐거운 안성을 만들고 싶다

바우덕이축제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안성에서 무슨 일
만 하면 비가 쏟아져.”라고 투덜거려요. 시민들이 가진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
적으로 바꾸어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도에서 안성시만 철도가 없잖아요. 평택 기차가 안성 쪽으로 지나가려
했는데 반대가 많았다는 설, 자연농원(현. 에버랜드), 용인55향토사령부가 오
려 했는데 시끄러워서 반대했다는 설이 있어요. 인지 왜곡이예요. 일부 사실
을 바탕으로 전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과 행동을 왜
곡시켜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죠.

1925년에 천안에서 안성을 오는 안성 기차, 안성선이 처음 생겼어요. 그 전인

1892~1899년 까지 일본 사람들이 경부철도를 놓으려고 네 번 조사하는데 네 번 다 죽산 쪽을 지나가지, 안성 쪽은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어요. 다음에 조사할 때 평택으로 지나가요. 서울에 내려와서 죽산 거쳐서 충청도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노선은 산악지대가 많아요. 도시를 지나가면 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산악지대를 선택했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 최종적으로 별판을 지나가는 노선으로 정했어요. 당시 평택역, 대전역, 이리역 주변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안성 사람들이 안성에 기차가 지나가는 걸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반대했다면 죽산 사람들이 반대했어야죠. 1914년 전까지 안성하고 죽산, 양성은 다른 동네였거든요.

신문 기사를 보면 용인 자연농원을 만들 때 안성을 검토한 적이 없어요. 대립 산업 창업주가 대립 동산 땅을 사놓으면서 용인 자연농원 땅하고 같이 큰 개발단지가 이루어진다고 소문이 돈 건데, 사실 안성 사람들에게 인지 왜곡이에요. 안성 사람들은 배타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인식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타지에서 온 분들이 안성은 살기 어렵다는 소리를 하곤 해요. 아버지가 안성 시장에서 어물전을 하셨거든요. 장거리 쪽에 가면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장사했던 터가 있어요. 아버지가 1908년생이니까 살아계셨으면 100세가 훨씬 넘으셨겠죠. 안성장이 크니까 전국 장돌뱅이들이 다 와요. 그러다 보니 외지인이 안성 사람에게 돈 빌리고 도망가서 피해를 많이 봤대요. 그러니 외지인이 오면 저 사람은 어떻게 유심히 보는 거죠. 그런 점이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안성 사람들이 배타적이고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외지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안성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누가 제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친척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라고 답해줬어요.

안성만의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안성 축제에 안성 사람이 우선 즐거워야 하거든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안성시민이 참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해요. 보여주는 축제 말고, 참여하는 축제로 전환해서 시민이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죠.

제 친구들이 60대 중반이니 퇴직하고 집에서 손주를 보거나 모여서 막걸리 마시고 화투 치면서 시간을 보내요. 학교 다닐 때 취미 생활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진짜 좋아서 취미를 가진 사람 아니고서는 잘 노는 방법을 몰라요. 막 노는 게 가장 좋은데 이야기하다 보니 체계적으로 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들은 손주 보거나 등산 외에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지금 유치원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버지들에게 취미 생활, 지역사, 노는 방법 등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덕봉서원 사무국장을 하면서 70세 넘는 어르신들과 큐브를 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뭐냐고 거부하시더니 2번 교육을 받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더 해보자고 해서 3회 교육을 추가로 했어요. 큐브가 지능개발이나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잖아요. 노는 방법을 모르니까 처음에 거부했던 거죠.

‘노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못 논다.’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건 아버지학교를 설립·운영하면서 잘 노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안성 문화재 지킴이,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부를 설립하는 거예요. 사회가 노령화에 깊숙이 접어들었는데, 주변에 경로당을 활용해서 유치원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잖아요. 끝없는 반복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잘 놀고 즐거운 안성 사람이 많아지겠죠.

6권

이종일 사람책

‘인생을 연출하자’

“2016년, 안성시립 남사당 배우덕이 풍물단 예술 감독으로 안성에 오게 되었어요. 제가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규모가 크고 기술이 많이 동원된 작품의 무대 감독, 기술 감독, 연출을 많이 했었어요. 배우덕이 풍물단을 현대화시키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와서 예술 감독을 2년 정도 한 거죠. 풍물단 공연장에 영상 스크린을 설치하고 조명과 음향 장비를 보완했어요. 볼거리를 다양화하고 스토리를 강화해서 대중에게 다가가는 작업을 했어요. 금광면에 농가를 얻어 작은 소망이었던 텃밭을 가꾸며 배우덕이 풍물단 예술 감독 일을 했어요. 그런데 2년 임기를 마치고 서울 집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가기 싫더라고요.”

- 이종일 (살구나무책방 대표)

contents

- 1장 무대 위의 삶
- 2장 무대 밖의 삶
- 3장 새로운 무대를 향해

keywords

#길잡이교사#살구나무책방
#배우덕이풍물단예술감독
#콘서트연출 #무대감독
#연극 #배우 #작가

story





이종일 사람책 ‘인생을 연출하자’

1장, 무대 위의 삶

제 삶은 가족이나 주변에서 보기에는 교과서 같은 삶은 아닐 거예요. 책상 밑에 숨겨보던 불량소설책 같을지도 몰라요.

불량이라는 게, 어떤 사람 관점에서는 불량으로 보이고 본인이나 또 다른 사람 관점에서는 우량으로 보이기도 해요. 저는 주로 연극, 공연 활동을 했으니까 그 시대에 부모님이 보시기엔 제가 아주 불량스러운 활동을 했던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삶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러나 관객이나 대중은 공연을 보고 감동도 받고 좋아해 주니까, 관객 측면에서 보면 우량일 수도 있죠.

책 제목을 《인생을 연출하자》라고 정한 이유는, 자기 삶도 연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먹고 살기 급급했던 시대는 지났으니까 삶을 자기가 연출하고 즐길 수 있도록 살아보자는 거예요. 저는 무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지금껏 살았어요. ‘인생은 연극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무대가 사실 삶의 축소판이거든요. 무대를 꼭 온스테이지(onstage)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무대, 세상을 무대로 본다는 의미로 확장해서 생각해 주세요.

저는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한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부모님이 고생하는 모습



을 보면 자식들은 보통 빨리 안정적으로 돈 벌어들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해야 하잖아요. 부모님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말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라고 하셨어요. 졸업하고 빨리 취직해서 집안에 보탬이 되도록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죠. 공고나 상고 둘 다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이과는 더 적성에 안 맞아, 할 수 없이 상업 고등학교에 갔어요. 당시 서울에서 덕수상고, 선린상고가 제일 좋은 학교였는데 야구로 유명했던 선린상고를 택했어요. 그때 고교야구 인기가 지금 프로야구 저리가라였거든요. 야구를 자주 보는 재미라도 누리려고 갔어요. 그런데 학교에 들어갔더니 대부분 과목명에 상업이 들어가 있었어요. 부기, 주산, 회계 등이 있었는데 제가 전화번호도 잘못 외울 만큼 숫자에 약하거든요. 아직도 차 번호를 못 외우거든요. 친구들은 졸업하고 은행, 증권회사 등으로 취직했어요. 진작 취업을 포기하고 진학을 독학으로 준비한 나는 보기 좋게 대학 입시에 낙방했죠.

저는 재수해서 대학 연극과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서울역 건너편에 규모가 큰 입시학원인 대일학원이 있었어요. 저는 학원비 낼 돈이 없어서 학원 칠판을 닦으면서 무료로 강의를 들었어요. 월급을 받지 않고 강사님을 도와 드리거나 잡일을 했어요. 누런 은행잎 같은 고동색 운동복을 입고 있으면 ‘기도’라는 표시예요. 기도는 강의실을 출입하면서 어느 강의든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민중극단에 연수 단원으로 들어가 본격적인 연극을 시작하게 됐죠. 부모님이 저를 보고 아주 언짢으셨을 텐데, 결국 포기하셨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나중에 공연도 보러 오시면서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아요. 청와대 바로 뒤에 있는 세검정이 제 고향이에요. 저는 동네에 있던 세검정교회에 다녔어요. 당시 교회는 친구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 공간 역할도 했지요. 교회에서 가을마다 규모가 큰 예술제를 했는데, 저는 연극에 참여했어요. 선배인 대학교 형들이 가르쳐주었는데 제가 연극에 끼가 있었나 봐요. 연극을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연극을 처음 시작한 건 성극이지만 고등학생 때는 그게 싫어서 우리 마음대로 멜로드라마 같은 일반 연극을 했어요. 당시 목사님이 많이 개방된 분이셨거든요. 기억 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미대생 역을 맡아서 가발 쓰고 연기하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세검정 주변에 이화, 진명, 배화, 창덕 등 여학교가 많아서 여학생이 연극을 많이 보러 왔어요. 장면 중에 담배 태우는 장면이 있어서 담배를 꺼냈죠. 여학생들이 소리를 지르며 난리가 났어요. 제가 성냥불을 탁 켜자, 객석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상대역이 뭐라고 하면서 담배를 낚아채서 바닥에 탁 던지니까 관객들이 에이, 라고 하면서 실망의 야유를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처음 관객이라는 존재를 의식했던 거 같아요.



저는 남동생과 여동생 한 명씩 있어요. 동생들은 제 덕분에 공연을 무료로 보러 다녔으니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은 셈이죠. 특히 여동생이 공연 보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큰 공연도 많이 맡았고 뮤지컬이 활성화되면서 인기 있는 공연에 많이 참여했어요. 이문세, 조용필, 양희은, 산울림, 성시경 등 웬만한 가수 콘서트도 맡아서 했어요. 딸이 대학 졸업하고 저처럼 무대 감독을 하겠다고, 조감독을 맡은 지 1년 넘었어요. 더욱이 저도 하고 싶은 일을 했으니 명분도 없어요. 앞으로 딸 덕에 문화 혜택을 보게 생겼네요.

무대 위에 삶, 자기가 하는 일이 힘들은 어떤 분야를 하든지 마찬가지죠.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자신이 원

하는 일을 하고 살진 못하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돈을 못 벌고 힘들어도 즐겁게 했어요. 결혼도 계획에 없었으니까 나 혼자 삶을 개척해서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연극이 당시에 척박하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물리적으로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힘들지 않았어요. 심지어 매일 길에 나가서 연극 포스터를 붙이고 광고지를 나누어 주면서도 즐거웠어요. 한번은 명동거리에서 광고지를 나눠주다 우연히 친척을 만났어요.

“너 연극 한다더니 이런 거 하는 거니?”

저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쳐다보는 친척을 피해 얼른 골목 뒤로 뛰어갔죠. 한밤중에 풀 통을 들고 전봇대나 건물 벽에 포스터를 붙이다가 경찰서에 잡혀간 적도 많아요. 포스터를 스카치테이프로 붙이는 것을 ‘스카치팅’, 풀로 붙이는 것을 ‘풀팅’이라고 했는데 미팅은 한 번도 못 해 봤지만 스카치팅, 풀팅은 선수였죠. 또 한번은 명동거리 구두 수선 가판대에 붙여도 될 것 같아서 포스터를 붙이는데 구두 닦는 분이 “야, 인마. 붙이지 마!”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야, 재네 저거 붙여서 100원씩 받는데, 놔둬라.” 그러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붙이고 왔어요. 돈을 받지 못했지만, 작업비 천 원 가지고 나가서 하루 작업하며 테이프 사고 명동 뒷골목 가서 500원짜리 국수 하나 사 먹던지, 아니면 둘이 500원씩 합쳐서 막걸리 반주전자 500원에 안주 500원짜리 먹으며 일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버티고 견딘 거예요.

1983년에 제가 무대 감독 첫 데뷔를 했어요. <아가씨와 건달들>이라는 뮤지컬이었는데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빨리 데뷔를 한 편이에요. 당시에 무대 감독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얼굴에 화장하고 수동적으로 보이는 배우는 별

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대 감독으로 시작한 무대 일이 어느덧 40년이 됐네요. 일을 오래 할 수 있었던 건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86 아시안 게임, 88올림픽 이후, 큰 공연이 생기고 뮤지컬, 오페라 등 공연이 활발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 작품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창작 뮤지컬의 하나인 <명성황후>예요. 뉴욕이나 런던 등 해외 공연도 하면서 공전의 히트를 했죠. 이후 후배를 양성하고 전 기술 감독, 연출로 자리를 옮겨 활동했죠. 수입이 많진 않았지만, 보람은 충만했죠. 시간이 지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 낳고 살 내 집도 있고,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콘서트 연출은 돈 벌기 위해서 했던 건데 오히려 나중에는 전문 분야가 된 경우예요. 이문세 공연을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됐는데, 기존 콘서트와 달리 한편의 뮤지컬처럼 만들었죠. 이게 신선한 반향을 일으켜 조용필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가수의 연출을 맡게 됐죠. 조용필 35주년·40주년, 평양공연, 이문세 30주년, 양희은 30주년, 산울림 30주년 등을 연출해서 기념공연 전문 연출가라는 별명도 얻었죠. 아마 대중음악 연출가로 신문 기사화가 되고 방송 인터뷰를 한 유일한 경우일 거예요. 아무튼, 극단 연구생으로 시작해서 무대 감독, 기술 감독, 연출, 예술 감독까지 해봤고 나름 성과도 냈으니 만족하고 감사한 삶이었죠.

2장, 무대 밖의 삶

무대 밖의 삶에 속한 가족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가난한 연극인과 결혼한 아내, 낳아 놓기만 했지 제대로 돌보지 못한 두 아이에게 제일 미안해요. 제가 연극을 하는 사람인 건 알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힘들고, 돈을 이토록 불안정하게 벌어들 줄은 몰랐던 거죠. 연극으로 생활이 힘들어 잠시 월급쟁이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아내를 만났어요. 저는 테마파크를 표방한 <롯데월드> 퍼레이드 감독을, 아내는 의상 담당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가난한 대학로 연극인이 대거 진출해서 돈 벌이했죠. 지금은 스타가 된 최정원, 심은하 등도 퍼레이드 연기자로 활동했으니까요.

전 3년 일하고 다시 연극관으로 돌아왔고 아내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에서 의상디자이너로 일했어요. 제가 연극 할 때 아내가 돈을 벌어서 생활을 꾸렸어요. 저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직업이라, 한 작품 하고 나면 한두 달 쉬기도 하고 수입도 불규칙적이라 생활을 꾸리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한집에서 살았거든요. 아내가 시부모님을 모시며 직장 생활해서 돈도 벌고 살림도 도와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어머님이 육



아와 살림살이를 맡아 큰 도움이 됐죠. 오죽하면 동료들이, 너 아직도 이혼 안 당하고 사냐고 물었어요. 그래도 제가 인터뷰해서 신문에 나오고 큰 공연을 하니깐, 집에서는 자부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힘들었어요. 제가 집에서 잘 처신해야 하는데 바깥일에만 신경을 쓰고 사니 집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이들하고 놀아주지 못했고 크리스마스, 명절, 송년처럼 특별한 날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그때마다 중요한 공연이 있으니, 저는 공연장에서 일했어요. 12월 31일에 밤새 공연하고 해를 넘겨서 들어오는 생활을 오래 했어요. 저는 오후에 출근해 새벽에 들어오니 아이들은 자고 있고, 아이들도 제가 자는 모습만 보고 학교에 갔죠. 아이들 어린 시절에 많은 추억을 못 쌓아줘서 가장 미안해요. 대중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부터라도 잘

해보려 하는데 몇십 년 했던 버릇이 있어서 잘 안 되네요. 이제 공연은 안 하지만 식구와 떨어져 책방을 한다고 나와 있으니 말이죠. 요즘은 아내도 책방을 좋아해요. 마당에 꽃도 가꾸고 자연을 즐기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이제 무대 밖도 무대 안으로 끌어안아야죠.

3장, 새로운 무대를 향해

제가 공연계 스태프 쪽 일을 확장하며 회사를 차려서 10여 년 넘게 운영했어요. 무대 감독이 10여 명 있었고 음향팀, 무대팀, 소품팀 등을 갖췄고 《백스테이지》라는 공연 기술 잡지도 창간했어요. 그런데 제가 명색이 상업고등학교 출신이지만 경영에는 소질도 없고 큰 관심도 없었어요. 동료들에게 말하고 제 작업하느라 회사 살림을 못 챙겼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빛이 쌓여 있었어요. 제가 빚지는 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회사를 해산하고 팀별로 독립을 시켰죠.

콘서트 일도 오랜 시간 반복하면서 회의가 들었어요. 그만하고 싶었어요. 매번 똑같은 상품을 포장만 바꿔서 내놓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콘서트를 할 때 히트곡은 매번 보여줘야 하는데 표현 방식을 바꿔야 하는 거죠. 지난번에 영상을 사용했으면 이번에는 특수효과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매번 포장만 바꾸는 작업을 한다는 생각이 든 거죠. 더불어 가수만 돋보이는 작업이지, 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해보려고 2016년에 콘서트 연출 은퇴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쉬겠다고 선언했는데 명하니 실 수는 없었죠. 마침 안성바우덕이 풍물단 예술 감독을 뽑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찾아보니 10시

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고,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1년 동안 상설 공연을 하더라고요. 제시간을 가지면서 농사짓고 글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성에 오게 된 거예요. 미뤘던 학업도 뒤늦게 마쳐 50세가 넘어서 공연예술학 석사를 취득했어요.

제가 세 살던 농가 앞에 폐가가 있었는데 고쳐서 책방을 만들어 개인 작업실로 쓸 생각을 했어요. 혼자 있기는 심심하니 사랑방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지역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소박하지만 재미난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



서 살구나무책방을 열게 되었어요.

제가 공연 감독할 때는 잠실 운동장에서 5만 명 관객을 모시고 공연했잖아요. 책방에서 20명, 30명 정도 관객과 진실하게 소통하고 나누면 보람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방 음악회, 책방 가무악, 책방 시 낭송 콘서트, 책방 극장 등을 했는데 다들 좋아하고 저도 재미있더라고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대중적 공연보다 제가 하고 싶은 공연을 하면서 문화 소외지역에 일조한다는 보람도 느끼죠.

저는 나무에 오르는 걸 인생에 비유해서 생각해요. 땅에서 나무를 올려다보면 나무가 곧게 어느 정도 가다가 가지가 퍼져요. 어느 가지가 가장 높이 올



라가는 가지인지, 가장 튼튼한 가지가 무엇인지 가늠하긴 쉽지 않잖아요? 일단 올라가면서 가지를 선택하고 또 올라가죠. 그런데 오르다 보면 저쪽 가지가 튼튼해 보이고, 높이 올라가는 가지처럼 보이기도 해요. 썩은 가지를 만날 때도 있고요. 힘들게 올라온 게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 다시 내려와야죠. 그리고 나서 언덕으로 올라요. 나무를 멀리서 바라보면 어디로 올라가야 할지 전체가 보여요. 그 과정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닌 나무를 올라가서 기를 쓰고 옆 가지에 올라타고 다른 가지 휘어잡아 올라가는 삶을 살지 말고 아까워도 내려와서 다시 전체를 보자는 거죠.

제가 사무실을 그만뒀을 때와 콘서트 감독을 그만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아



내가 한마디 했어요. 왜 잘 나가던 걸 그만두느냐고, 박수 칠 때 떠나는 거냐며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거죠. 개런티 한참 많이 받을 때인데 별안간 시골 가서 농사짓고 책방 한다니까 얼마나 어이없었겠어요. 이기적인 생각이었죠. 그런데 욕심내지 않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원래 선택했던 나무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래도 내가 오르고 싶은 나무라면, 그때 다시 올라가도 충분하잖아요. 안성은 제게 다시 나무를 바라볼 수 있는 언덕 같은 존재였어요.

저는 산을 좋아해서 히말라야, 백두대간 종주 등 많은 곳을 다녔어요.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해서 전국 다 다녔으니 경치 좋은 곳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잠깐 지나가며 보는 건 좋은데 계속 살기엔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는 평온했으면 하는 거예요. 안성은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좋아요. 대부분 평야이고 뒤돌아보면 나지막한 산이 있어서 편안해요. 그런데 한편, 한 번쯤은 바다나 강 근처에 살아보고 싶은 유혹이 들어요. 동해 묵호항이나 무릉 계곡에서 살구나무책방 대신 바다책방이나 무릉서림 같은 걸, 한 번 더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본 나오시마섬에 하우스프로젝트라고, 빈집을 하나의 프로젝트 작품으로 만든 집이 대여섯 채 있었어요. 살구나무책방 근처에도 폐가가 몇 채 있는데 리모델링해서 하우스프로젝트처럼 만들어 살구나무책방을 기점으로 문화 마을을 구성해 보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장 출마도 욕심내고 있어요.

제가 공연 안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잖아요. 50세가 넘고 60세가 되며 배우, 작가, 농부라는 세 가지 직업을 새로 설정했어요. 실행에 옮긴 지 3년 정도 되었어요. 신인 배우로 주인공도 맡으며 단편영화 몇 편 찍었고, 초보 작가로 시나리오 희곡을 쓰고 농부는 계속하고 있어요. 삽 하나 들고 집 주변을 계속



뒤집고 다녀요. 광고도 몇 편 찍었고요. 밭에서 호미질을 하다가 전화 오면 찍으러 갔다 와요. 곧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하고 영화 한 편 찍기로 해서 긴장돼요. 몇십 년간 영화 일을 한 사람도 잘 될지 모르는데 지금 시작해서 되겠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부담 갖지 않고 하다 보면 분명히 기회가 와요. 주변 사람들에게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하는데 다 할 수 있어.”라고 말해요. 저는 제2의 무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니 이미 무대에 올랐죠. 내년쯤에는 설치 미술 작품도 해보려고 해요. 오래전부터 프로젝트로 생각해 왔던 게 있거든요. 우리가 유기장처럼 전문 기술이 필요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지 기본 문화적 근원은 같아요. 이것을 미술, 글, 연기 등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느냐에 차이죠. 그러니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어요. 인생을 자기가 연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제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더니 지나고 보면 그걸 하고 있다고 놀라는데 제가 비상한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 애정을 갖고 준비하면 기회가 오더라고요. 요즘에 기회가 많아졌거든요. 예전에는 작가가 되려면 신춘문예에 꼭 당선되어야 했지만, 지금은 작가가 되는 방법도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하면 파생되는 일이 많아요.

지금 책방을 하지만 책방 손님은 일주일에 몇 명 안 와요. 거기다 예약제로 받거든요. 제가 밖으로 돌아다니니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 때문에 예약제로 해서 사람이 겹치지 않게 한 팀씩만 받았거든요. 제가 현 집을 고쳐서 책방을 연 자체가 제 평생 대표적인 일 중 하나가 아닐까요. 방송촬영이나 인터뷰하러 오면 제게 책방 만들며 가장 보람찼던 일을 물어봐요. 책방 열고 1년 정

도 지나 살구꽃이 피었을 때 어떤 중년 여자가 불쑥 들어왔어요. 말도 안 하고 갤러리 방에 앉아서 작은 창문을 내다보는 거예요. 차 한 잔 드렸더니 30분 정도를 앉아 있다 갔어요. 책방에 와서 책도 안 보고 가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이곳이 본인이 태어난 집이래요. 어릴 때 부모님, 오빠 둘과 살던 집이라는 거예요. 폐가가 되어서 풀숲에 묻혀 있는 걸 봤는데, 어느 날 보니 집이 멀끔하게 개과천선해서 들어와 본 거예요. 이 집에서 결혼하고 첫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낳은 기념으로 살구나무를 심었대요. 아들이 지금 25살이래요.

“아, 이제 28살이겠네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다 쓰러져 가는 집이라고 헐어 버렸다면 한 사람의 과거와 추억이 다 없어져 버렸겠죠. 현 집을 고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월 20일 밤에 처음으로 책방 극장을 열었어요. 책방 마당에서 운동주 시인의 삶을 다룬 영화 <동주>를 상영했어요. 추운 날씨에도 주민 몇 분이 보고 가셨어요. 동네 사랑방으로 역할을 한 셈이죠. 원래 책방 영화제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다른 일이 많아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계획은 많고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상황이 녹록지 않네요.

영화 <인턴>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경험은 결코, 늙지 않는다.’는 대사를 했어요. 내가 요즘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과연 아이들과 놀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험이 아이들과 다리가 되어 주더라고요. 살구나무책방도 다양한 주민들의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려고요. 유명한 배우나 작가가 되지 않아도, 대농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잘 놀다 잘 가면 잘한 연출인 거죠!

7권

강철규 사람책

‘삶을 노래하는 유도인’

“제가 자전거를 좋아해서 안성 시내를 매일 순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을 잘 낳는지, 못 낳는지 보고 벼가 익었는지, 쓰러졌는지 보고 다녀요. 제자가 자전거를 선물해 줬는데 하도 타고 다녀서 두 달 반 만에 망가졌어요. 자전거포를 하는 제자가 자전거를 고쳐서 보내왔는데 이제는 멀리 가도 고장 나지 않아요. 자전거를 타니 무릎도 좋아지고 여유가 생겼어요. 자전거 한 대로 어디든 다녀요. 빨리 달리지 않고 느리게 가면서 주변을 봐요. 제 등에 우쿨렐레를 달고 다니는데, 제가 연주하면 새들이 함께 해요. 철새하고 같이 노는 거죠. 강아지도 반응해요. 제가 다섯 박자를 치면 강아지도 킁킁 짖어요.

제가 자전거 타고 건물 앞을 지나다니면서 이곳에서 노래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노래를 부를 수 있어 행복합니다.”

- 강철규 (유도인)

contents

- 1장 중학교 1학년 씨름선수,
2학년에 시작된 아버지 대를 이은 유도
- 2장 용인대 국가대표의 어려움
- 3장 2000년 3월 유도관 오픈식
- 4장 23년이 된 체육인으로 전국대회 우승목표
- 5장 음악 인생은 ‘연가’ 하모니카 속 나의 목소리
- 6장 첫사랑과 헤어짐은 음악을 내 인생에 다시 살게 했다

keywords

- #유도 #씨름선수 #선수
- #용인대국가대표 #체육인
- #유도관 #하모니카 #노래
- #자작곡300곡

story





강철규 사람책 '삶을 노래하는 유도인'

1장, 중학교 1학년 씨름선수,

2학년에 시작된 아버지 대를 이은 유도

아버지가 저 4살 때 온양에서 돌아가셨어요. 안성에 버스 3대 있을 때 그중 한 분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친구분들이 하는 말씀이, 아버지가 기름 드림통을 들었다 놔다 했대요. 힘이 좋았고 씨름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어린 나이에 씨름을 배웠죠. 운동신경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노력했어요. 저는 4살 때 처음 걸어서 동네 어른들이 저를 보고 못 걷는 아이가 태어났다고 했어요. 저는 발달 속도가 느렸지만, 운동을 꾸준히 좋아했어요. 안법 유치원 졸업식 때 사각모를 쓰는데, 제 머리가 커서 모자가 맞지 않았어요. 수녀님이 가위로 모자를 터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철규는 우리 유치원에서 머리가 가장 커서 맞는 모자가 없는데.”

그때 앞에 나와서 칠판에 자기 이름을 써야 졸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름을 쓸 줄 알았는데 내성적이라 못 쓴 거예요.

5학년 때 학교에서 나누기를 배웠어요. $5 \div 2$ 는 2.5잖아요. 선생님이 답을 물어봤지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화를 냈어요. 나중에 누군가가 대답했어요. 저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내성적인 친구들이 말 못 하고 있었겠죠. 그 생각이 아직도 나요.

2장, 용인대 국가대표의 어려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멋진 아버님을 만나 재혼하셨어요.

제가 용인대와 경희대에 동시에 합격했어요. 당시에 용인대가 유도로 주목받고 있었어요. 제23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메달도 딴 상황이었어서 제가 용인대를 선택했어요. 그때 새아버지가 등록금을 주시면서 “너 유도하면 굶어 죽는다. 내가 용인대에 알아봤는데, 거기 복싱부가 있더라. 유도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하고, 복싱부로 전향해.”라고 했어요. 새아버지가 복싱을 좋아했거든요. 황규하 은사님이 용인대학교 선배인데, 당시엔 은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유도 체육관을 열었는데 씨름도 같이했어요. 유도 선수도 씨름을 좋아하고 씨름 선수도 유도를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분리되었지만, 초창기에는 함께 하는 분위기였어요.

안성시청이 공설운동장 자리였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3학년, 대학교 1학년 때 안성 시민의 날 공설운동장에서 씨름 3연패 우승해서 황소 3마리를 탔어요. 그때는 씨름 개인전이 아니고 안성을 대표, 면 대표로 나갔어요.

용인대 지원하는 친구들은 국가대표가 되려는 꿈이 있어요. 저는 안성에서 고1 때부터 쪽 유도를 잘해왔는데도 용인대 입학하니까 친구들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전국 유명한 학교에서 모인 친구들이었거든요. 일본에서도 유학을



왔어요. 잡아야 메치잖아요. 그런데 잡기를 해결하기까지 1년 정도 걸렸어요. 용인대는 전공 실기 점수를 줄 때 시험을 해요. 4강 안에 들면 A+, 8강에서 16강은 A 이런 식이에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2학년 1학기, 2학기 때 체급에서 2번 우승했어요.

원래 7체급이 있는데 대학교에서는 3체급으로 크게 나뉘어서 전교생이 시험해요. 제가 뽑힌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무릎이 고장 난 거예요. 화장실에 앉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 군대 가니까 무릎이 다 나았어요. 용기 없는, 마지막 결정을 못 하는 내성적인 성격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

요. 그런 일이 인생에 두 번 정도 있었어요. 음악 가지고 놀 때도 준비한 걸 할 때 마지막에 터트리지 못하는 거죠.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군대 가서 후회했어요. 무릎이 아픈 진짜 아팠지만, 참을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았거든요. 마지막에 제 용기가 부족했어요. 당시에 제 무릎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없었던 거예요. 병원 가봐야 침놓고 뜸 놓는 게 다였어요. 학교 전통으로 내려오는 방법을 쓰는 게 더 나왔어요. 당시에는 몸에 칼 대면 끝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도 칼을 안 댄 거죠.

제 친구 아들이 유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꼭 제 모습 같은 거예요. 1등하고 싶어 했는데 결승전만 가면 저요. 결승전을 앞두고 그 아이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몽둥이로 20대를 때렸어요. 결국 1등 했어요. 다음 대회에 나갔는데, 이번 경기에서 꼭 이겨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관장님, 화장실에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이를 따라 갔더니 보자기에 쓴 몽둥이를 제게 내미는 거예요. 1등 할 수 있도록 때려 달래요. 3대를 때려줬더니 1등 했어요. 지금 그 아이는 용인대 ROTC 졸업하고 장가가서 잘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나면 제가 군대 가기로 했을 때가 생각난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술 한 잔 하자고 하면서 군대 가지 말라고 말리거나, 몽둥이로 때려줬더라면, 혹은 때리는 것에 상응하는 어떤 메시지를 줬다면 저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상황을 피하려고 군대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죠.

3장, 2000년 3월 유도관 오픈식

원래 후배가 유도관을 먼저 하고 있었는데 제가 2000년 3월에 이어받아서 하게 된 거예요.

서해 쪽에 파도리라는 곳이 있어요. 파도리는 이순신 장군이 대한민국 3대 여울목으로 지정한 곳 중 하나예요. 물이 위쪽으로 돌면 중국으로 시체가 떠내려가고, 아래쪽으로 돌면 일본으로 떠내려가는 곳이 있대요. 가운데에 섬이 있는데, 동네 분들은 잘 안 가요. 할아버지나 동네 분들이 그곳에서 많이 돌아갔으니까요. 발길이 뜸한 곳이니까 홍합도 크고 잡을 거리가 많아요. 유도 식구들이 먹는 걸 좋아하니 배를 사서 띄우고 섬을 점령했어요. 배를 타고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두 번에 나눠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한 번에 다 타고 나온 거예요. 배에 시동을 걸었는데 조금 가다가 시동이 꺼지고 배가 가라앉은 거죠. 배를 찾아야 원인을 아는데 배까지 실종됐어요. 저도 그날 파도리에 가기로 약속했다가 일이 있어서 못 갔거든요. 그런데 뉴스에 나온 거죠. 6명이 죽었어요. 체육관 관장하던 동생도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죠. 체육관이 공석이 되면서 제가 이어받아 운영하게 되었어요.

저는 가끔 소주 한 병 들고 찾아가서 바다에 뿌려주고 와요. 만약에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후배들이 저보다 유도를 더 잘했을 거예요.

4장, 23년이 된 체육인으로 전국대회 우승목표

제가 체육관을 하면서 다짐했어요. 당시 안성에 운동부가 연식정구부밖에 없었어요. 저는 젊은 청년들을 안성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안성 청년에게 큰 세상을 보게 해주려고 전국대회출전을 목표로 세웠어요. 처음에 나



갔을 때 한 판도 못 이겼어요.

다음번에 나갔을 때는 한 판만 이겨보자, 그다음에 3등 한 번 해보자, 금메달 한 번 따보자, 나중에는 전 체급을 석권해 보자고 말했어요. 전 체급까지는 못하고 다섯 체급 우승했어요. 용인대학교 수시모집에서 8명을 뽑는데 우리 학생 6명이 들어갔어요.

5장, 음악 인생은 ‘연가’ 하모니카 속 나의 목소리

중학교 2학년 때 강원도로 보이스카우트 전국 잼버리에 갔어요. 안성중학교, 안청중학교, 안법중학교 등 다 참여했어요. 잼버리에 가서 2명씩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저는 안성 대표로 ‘연가’를 불렀어요. 저는 하모니카, 친구는 노래하기로 정하고 연습을 많이 했죠. 당시에는 장비가 지금처럼 잘 갖춰지지 않아서 마이크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제가 전주로 하모니카를 불고 다른 친구가 노래하기로 계획했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마이크를 쓰다가 제가 먼저 하모니카를 부니까 저에게 마이크를 넘겨줬어요. 노래를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강원도 잼버리에 제 목소리가 퍼지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춤추며 즐겼어요.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내성과 외성을 겸비하게 되었어요.

6장, 첫사랑과 헤어짐은 음악을 내 인생에 다시 살게 했다

제 사연은 수많은 노래에 나오는 가사와 같아요. 누구든지 첫사랑이 있을 수 있는데 얼마나 빨리 잊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25년 정도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살다가 근래에 치유가 되어서 평정심을 찾았어요. <너의 의미> 노래가

담긴 김창완 앨범 속 〈여기 있어 그대〉 같은 노래가 저를 식혀줬어요.
‘나처럼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이 많구나, 창완이 형님도 그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식혀요. 노래 부르면서 식히기도 해요. 김창완 노래가 없었더라면, 음악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이 황폐해지지 않았을까요. 감정이 지워져야 하는데 저는 안 지워진 거죠. 스토커 마음이 이해될 정도로 진짜 사랑했거든요. 짝사랑은 아니었어요.

저는 의경에 입대하여 35개월을 보내고 제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한국무용을 시작했어요. 한국무용으로 대학에 가고 싶대요. 그 아이가 한국무용을 배우러 다닌다는데 알아보니 탐탁지 않은 곳이었어요. 제가 4년 선배라 먼저 입시를 경험했잖아요. 컴퓨터로 자료를 찾아봤더니 안성에서 중앙대 무용과가 제일 센 거예요. 중앙대 무용과 교수 이름이 뜨길래 교수를 찾아갔어요. 입학할 방법을 연구한 다음에 그 아이를 무용과에 입학시켰어요. 무용한 기간은 짧은데 내신이 좋아서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 정도로 사랑했던 여자예요. 그 아이가 스타일이 좋았고 무용가로서 성공하고 싶어 했어요. 늦게 시작한 사람이 무섭잖아요. 활동력이 커지고 무용 한 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해서 날려 보내줬어요. 그때부터 짝사랑이 된 거예요. 저도 운동을 포기한 경험이 있잖아요. 나랑 계속 같이 있으면 무용을 포기해야 하니까요. 만약에 다시 기회가 있었다면 잘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험 또한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가사가 많이 떠오르고 영감을 주니까요.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항상 지금이 행복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다 보니



몸 관리를 못 했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바람에 한 번 하늘나라에 갔다 온 경험이 있어요. 119구급차 타고 가다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니 매일 아름다운 날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행복하고, 행사 때 부를 노래 연습하는 것도 행복해요. 앞으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8권

전미선 사람책

‘해금 + 소리로 이야기하다’

“제가 문화 속에서 현상, 물건, 사람, 문헌 등을 통해 선 굿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에서 뭔가에 공을 들이고 헌신해서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제 예술적 가치도 올라가는 방향을 찾다 보니 여러 가지 일이 연결되었어요. 해금으로 시작한 한 점이 계속 짝하고 선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전의 내가 지금 모습을 보면, 이렇게 살 줄 상상도 못 하죠. 역사 속에 숨겨진 음악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예전 문화예술에 대한 호기심이나 향수 등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시 찾아보고 싶은 시절의 운명인지 자석에 이끌리듯 끌려가고 있어요.”

- 전미선 (해금연주가, 안성사연구회)

contents

- 1장 악가무, 춤추는 가얏고-예술가의 꿈을 꾸다
- 2장 중앙대 안성캠퍼스
- 3장 재담 소리(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8호) 해금 소리로 악장을 말다
- 4장 안성 경서님잡가(안성시 무형문화재 제4호 안성 경서님잡가)
- 5장 안성사연구회
- 6장 아기엄마가 하는 사회활동의 현실
- 7장 야생에서 살아남은 국악인

keywords

#해금 #아리랑 #민요
#재담소리 #안성사연구회
#안성기생양성과정연구

story





전미선 사람책

‘해금 + 소리로 이야기하다’

1장, 악가무, 춤추는 가얏고 - 예술가의 꿈을 꾸다

‘악가무’는 음악과 노래와 춤을 말해요. 어느 분야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가무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래, 악기, 무용이 한 무대에 서면 항상 앞에서 서는 건 노래예요.

저는 세 자매 중 맏이로 자랐고,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합창단으로 활동했어요. 휘경여자중학교에 다닐 때 우연히 <춤추는 가얏고>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고두심 씨가 가야금 연주자 역할이었고 오연수 씨가 딸로 나왔어요. 한 분야에 꽂혀서 몰입하는 극중 인물 모습이 멋있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멋스럽게 살 수 있을까? 예술가가 되면 어떨까?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진짜 멋있다. 아무나 못 하겠지?’

일에 매진하고 집착하는 모습과 자신을 가로막는 상황이 생겨도 일을 놓지 않고 꾸준히 가는 전문적인 모습에 반했어요. 드라마 후반쯤에 다시 보고 싶었던 사람과 해후하면서 가야금을 연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달리 말이 필요 없이 연주에 모든 걸 담은 거죠.

제가 더 어릴 때는 체조선수가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올림픽경기를 할 때 다



른 경기는 안 봐도 체조나 피겨스케이팅을 하면 밤늦더라도 꼭 보고 잤어요. 놀이터 모래판에서 체조를 혼자 해보기도 했어요. 마치 내가 체조선수 코마네치인 것처럼 몸을 움직여 보는 거죠. 제 친구들이 체조 흥내를 내는 저를 구경할 정도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막연히 영화 속 연기가 멋있어서, 종로에 찾아가서 연기시험도 봤고요. 연기와 음악을 고민할 때 중학교 선생님이 제게 기획사 소개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술가의 꿈이 구체화 된 건 <춤추는 가얏고>를 본 이후지요.

외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극장 가수였어요. 영화 보기 전에 커튼 치고, 커튼 앞에서 재담도 하고 노래도 하는 관객 물이꾼이요. 외할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였고 상이군인으로 육군하사로 제대하셨어요. 돌아가신 지 꽤 되셨는데, 뒤늦게 알아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어요. 최근에 산소를 국립 현충원으로 옮겼어요. 외할아버지, 외삼촌, 사촌 동생까지 병역명문가증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가족이 현충원에 모여서 행사를 했어요.

2장, 중앙대 안성캠퍼스

제가 중앙대 안성캠퍼스 94학번인데 음악대학 한국음악과에서 해금 전공을 했어요. 서울국악예고 선생님께서 선배님이 많은 중앙대를 추천해 주셨어요. 제 성적은 더 높았지만, 안정권으로 들어가서 장학금을 타려고 중앙대를 선택했어요. 학교에 입학해 보니 캠퍼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교수님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입학하고 음대 차석도 하고 성적이 좋으니 동기들이 추천해서 과 대표를 맡았어요.

과에서 새봄음악회같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학교가 좋았어요. 중앙대는 다른 학교에 비해 교내 활동이 꽤 많아요.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선배님들이 꼭 잡았거든요. 선배님들과 학교 행사에 참여해서 같이 합주할 기회가 많았어요. 우리 학교가 전통음악 중심에서 창작음악으로 확대되던 시기였어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한국음악의 흐름을 이끌어가던 시기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다들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3학년 때 제가 학생회장을 맡아서 예산을 받아 낙원상가 돌아다니며 발품 팔아 관현악실 타악기를 두루 갖췄어요. 그 당시에 저 일 시키려고 선배님들이 절 학생회장으로 만들었죠. 남자 선배들이 저를 기획단에 합류시켜서 예술대의 다른 과와 연합해서 마당극도 제작하고 지방 투어도 해보았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공연도 못하고 뒷일을 돕기만 했었죠. 속상했지만 제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중앙대 흑석 캠퍼스와 안성 캠퍼스가 함께 안성에서 대동제(축제)를 했는데, 흑석동 대표로 단대 회장님이었던 남자 선배와 안성 대표로 학과 회장이던 제가 공동 사회를 본 적도 있어요. 중앙대에서 위아래로 몇 년간 없었던 큰 행사였어요. 좋은 기회와 다양한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시기였어요.



동문 중에 창작 음악으로 넘어간 사람이 많거든요. 창작 음악으로 넘어가는 것과 민속 음악을 계속 부여잡고 가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음악적 색채인 톤 컬러가 다르거든요. 저는 대학 졸업하면서 <퇴계원산대놀이> 반주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학 선배를 따라 민요 반주를 하다가 <서도소리> 하시는 박정욱 선생님 문하로 정착해서 민요 반주를 중심으로 극음악 반주와 산조독주 등 다양한 음악을 해왔죠. 가례헌이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거의 매주 공연

하다시피 했어요. 무엇이든 해내야 했죠. 힘들기도 했지만 젊을 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주를 많이 해서 오히려 공부가 많이 됐어요.

“너는 왜 흠바람 나는 바닥에서 연주하길 좋아하니?”

20대 때 한 동기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저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창작 음악도 나름 멋있지만 전통음악은 전통 방식이 있는 건데, 그걸 이해 못 하는 거죠. 저는 20대 때부터 사람들이 전통이란 장르, 민속 음악을 왜 그렇게 치부하는지 의문을 가졌어요. 전통음악을 할 수 있으면서 창작 음악을 해야 하는데 완전히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전통을 가지고 가는 건 중요하잖아요. 창작과 변주도 그 근본인 전통음악이 있어야 더 빛난다고 생각해요.

3장, 재담 소리(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8호) 해금 소리로 악장을 맡다

1990년대에 서울대나 이대 등의 학교와 달리 중앙대는 민속 음악의 산실이자 본원이었어요. 게다가 안성지역은 민속 음악의 종갓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중앙대가 민속 음악 중심 예술학교이기 때문에 그 골격으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중앙대도 마찬가지로 안성이란 도시가 실제로 민속 음악 역사가 깊은 곳이더라고요.

대체로 민속 음악 반주를 보면 해금은 앞에서 선도하는 악기가 아니라 악기 구성에 들어가는 악기이고 피리, 대금에 비해 적극적으로 선율을 끌어가는 악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음악적으로 후미를 잘 장식하고 연결하고 관악기가 못 만들어 내는 음을 만들고 변청에 제일 먼저 음을 짚어주는 역할을 하



고 있어요. 민속악에 있어서 악장은 주로 장단잡이가 맡고 그게 안 되면 피리나 대금이 맡아요. 해금은 주로 어딜 가든 구성원이거든요. 악장을 해금이 또는 여자가 맡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적이 있나요? 제가 우연히 오브리(이벤트성 1회 공연)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한 번 연주하러 갔는데 그때부터 저를 계속 불러주셔서 그 단체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단체가 커가는 과정을 같이 지켜봤고, 후배들 불러서 계속 공연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악장이 되어있네요. 악장은 음악의 장을 말해요. 민속 음악에서 여성 지도자가 별로 없어요. 여자를 잘 안 끼워주거든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아요. 저는 한 길에 계속 발을 담그고 있어서 악장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동문 중에 창작 음악으로 넘어간 사람이 많거든요. 창작 음악으로 전향한 것과 민속 음악을 계속 부여잡고 가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음악적 색채나 톤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경기소리의 명인인 백영춘 선생님과 최영숙 선생님을 만난 것은 참 행운이었어요. 예술성도 훌륭한데 인성까지 좋은 분



을 만나 다양한 색깔을 가진 예술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셨고 좋은 성음에 대한 고민과 음악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4장, 안성 경서남잡가(안성시 무형문화재 제4호 안성 경서남잡가)

<안성 경서남잡가>는 안성시 무형문화재 제4호로 조명숙 선생님이 보유자예요. 조명숙 선생님은 안성 마지막 권번 기생이었던 손음전 선생님의 따님이에요. 시간표에 국어, 수학이 나오는 것처럼 <경서남잡가>는 안성 동리 권번과 장기리 권번에서 교육했던 과목명이예요. 권번이라 하면 안 좋은 선입견으로 보는 분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권번은 기생에게 노래, 춤, 악기 등을 교육하고 많은 명인을 배출해 낸 문화예술교육 기관이었어요. 저는 조명숙 선생님을 통해서 안성의 민요와 민속 문화를 배우게 되었어요. 평생 거의 안성에서만 계셨지만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의 것에 대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 악장으로 스카우트 되어서 음악 정리 과정을 돕다가 제가 소리까지 겸하게 된 거예요. <안성 선아리랑>은 손음전 선생님도 부르셨고, 조명숙 선생님도 계속 불러오셨어요. 행사하실 때 모든 노래에 앞서서 항상 부르던 노래예요. 조명숙 선생님께서 “우리 엄마가 어디든 행사를 가시면 군중을 한 방에 잡는 곡이 안성 선아리랑이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주나 다른 것 필요 없이 안성 선아리랑의 앞 구음만 들으면 시선이 한 번에 쏠린대요. 안성에 들어올 때 누구든 이런 선율이 흘러나오는 걸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경음악이나 노래로 안성 선아리랑이 흘러나오면 안성에 관광객이 더 많이 기억하고 또다시 찾아오지 않을까요.

굿거리장단의 안성 선아리랑입니다. 안성의 흥을 느껴보세요.

‘난나노 나나노~ 나지루 지누나~ 아아~ 나이 나이 나~ 아아아아 나아~’

5장, 안성사연구회

저는 국악을 시작한 이래 옛것을 추구하고 복원하는 데 세월을 보냈어요. ‘안성사연구회’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저에게 또 다른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저도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런 모임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알게 된 건 행운인 것 같아요. 안성사연구회는 제게 길을 알려주는 등대 같은 곳이에요. 저는 안성사연구회 총무이자, <안성 경사남잡가>와 그 외 안성지역 음악을 찾고 정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결국엔 거대한 역사의 한 부분인 음악에 관련된 연구하는 거예요. 안성사연구회에서는 학술대회를 꾸준히 열고 있어요. 지역의 역사가 가진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공유하고 이미 있는 것을 정리하고 있어요. 안성은 민속 문화 예술의 본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야 할 것과 정리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일을 하나씩 정리해 나갈 거예요.

6장, 아기엄마가 하는 사회활동의 현실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건 그 세월을 견뎌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지, 아이가 어린데...’

하루에도 열두 번씩 생각하며 일했어요.



제가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예술가로 살려면 그런 면도 필요한 것 같아요. 주저했다라면 지금 아마 그냥 두 아이 엄마로서만 살고 있을 거예요. 제가 월급 받는 단체에 소속된 것도 아니잖아요. 음악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컸고 제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것을 추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나아갔어요. 아이들이 크게 아프지 않고 잘 따라줘서, 남편이 집안일을 잘 도와줘서 일을 놓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른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마음이 힘들고요.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30분만 더 봐달라고 부탁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든요. 아이를 언제 데려갈 거냐고 묻는 선생님 전화를 받으면 조마조마해요. 겪어 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대체 내가 뭐라고, 이 일이 뭐라고 내가 이럴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한 번씩 주변에서 연락이 와요. 지금의 저를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묻기도 해요. 그동안 적극적으로 저를 홍보하지도 않았고, 제가 얼마나 힘들게 활동해 왔는지 잘 모르니까요.

문화예술계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육아와 마찬가지로예요. 계속 버티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힘든 순간을 지나 찰나의 기쁨이 와요. 그런데 그건 정말 찰나거든요. 그 뒤엔 또다시 육아와 같은 노동이 반드시 따라와요. 그 찰나를 기억하고 희망하며 계속 매진해 나가는 것 같아요.

7장, 야생에서 살아남은 국악인

얼마 전에 국공립단체에 있는 동기가 제게 한 말이 있어요.

“미선아, 이제 야생에서 살아남은 애는 너 하나다.”

예고 때 해금 전공한 동기가 꽤 많았는데 세월이 지나 돌아보니 활동하는 친

구가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겠지요.

저녁때 불 켜놓으면 나방들이 달라붙잖아요. 본인이 타 죽는 줄도 모르고 반짝거리는 빛만 보고 달려드는 거예요. 본능과도 같아요. 저는 제 안에 빛이 있다고 생각해요. 빛이 너무 환하고 황홀해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내 안의 빛과 더 큰 빛이 연결되어 큰 빛을 만들어 증폭해 내고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고 싶어요. 가만히 보면 제가 집에 가만히 못 있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하지? 노래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이 공연에서는 내가 어떤 콘셉트로 가고 옷을 입으면 어울릴까? 어떻게 하면 구성원과 멋있게 음악을 만들까?’

작은 디테일까지 고민하게 돼요. 자기 직전에도, 자면서도 머릿속에 파노라마 처럼 계속 생각이 흘러가요. 예술 하는 사람은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예술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더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네요. 그리고 실제로 예술가는 너무 멋있잖아요. 국악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만의 스타일과 향기가 있어요. 인내심 없이는 이 길을 절대 걸어오지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가요. 예술 활동을 함께하는 이들이 너무 멋있고 아직도 설레요. 그 어려운 길을 걸어온 이들 모두에게 토닥여 주고 손뼉 쳐 주고 싶어요.

‘그동안 수고했고 잘 해왔어. 당신은 참 멋진 사람이야.’라고요.

9권

이인숙 사람책

‘감사함, 축복 그 이상의 것’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10의 27승분의 1이래요. 그중 하나가 저예요. 사람이 되지 않았더라면 동물, 거미, 뱀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적다는 말을 듣고 난 뒤에 뱀을 보고 징그럽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개도 알고 태어난 게 아니니까. 나도 태어나고 보니 나지, 어렸을 땐 모르잖아요. 60살에 다 되어서 깨닫고, 잘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동물 세계에서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모습을 안 좋게 봤었거든요. 생각해 보니 내가 사자로 태어났다면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야 살잖아요. 털에 피가 묻어야 하는데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형언할 길이 없는 거죠. 인간의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덮어놓고 사람으로 태어난 줄 아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적 표현으로 신의 은총이라고 해요. 어찌 됐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인간답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 이인숙 (도림목재 대표, 시낭송가)

contents

1장 부딪히는 대로 사는 삶

2장 다가오는 삶

3장 받아들이는 삶

keywords

#1945년생 #감사 #축복

#삶 #절약 #시 #시낭송가

#탈북민교육

story





이인숙 사람책

‘감사함, 축복 그 이상의 것’

1장, 부딪히는 대로 사는 삶

제가 1945년생이라 어릴 때 6·25전쟁이 일어났어요. 한 친구가, 우리 세대는 전쟁을 겪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하기에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쟁 중이었을 때 우리는 부모님께 부담되는 나이였거든요. 전 11월생이라 만 5살이 안 된 시기였으니 부모님이 저를 등에 업기엔 힘들고 걸으면 힘들다고 울었겠죠. 그러니 6·25전쟁을 겪은 게 아니에요. 전쟁에 대한 기억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요. 겪었다고 이야기하자면 1·4후퇴를 말해야죠. 만 5세가 넘었을 때니까 점점이 기억나거든요. 전쟁을 겪으며 죽은 사람도 많고, 고아 된 사람도 많아요. 그때 죽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잖아요.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해요. 지금 전쟁 일어난 나라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직장 다녀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잘살아 보려고 직장에 열심히 다니다가 결혼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젊은 시절을 이야기하자면 참 많죠. 식구가 14명이었는데, 그때는 모든 일이 다 수작업이라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살다 보니 뉴욕처럼 앓은 삶의 기반이 되었던라고요. 나는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우주는 대자연이고 인간은 소자연이라고 했어요. 우주를 모르듯이 인체는 모른다는 거예요. 기계를 다룰 때 조이고 닦고 기름 친다고 하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 몸을 다룰 때도 조이고 닦고 기름쳐야 해요. 내 몸도 기계예요. 조이고 닦고 기름 친면 몸이 원상 복귀가 된다는 사실을 젊을 때 깨달아서 몸을 항상 움직였어요. 젊었을 때 한 일이 참 많아서 제 시간을 만들기 위해 초를 다투고 일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꼭 몸을 풀고 잤어요. 기계도 더디 망가지듯 내 몸도 더디 망가진다고 생각해요.

힘이 센 장사가 황소를 들려면 송아지 때부터 매일 한 번씩 든대요. 그러면 황소가 되어도 들 수 있대요. 젊을 때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일에 대해서는 겁날 게 없어요. 하면 되죠. 일은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나이보다 어린 사람에게 손빨래하라고 말하면 어떻게 빠느냐고 되물어요.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 돌아봤을 때 고생해서 힘들었다고 원망만 하면, 나는 바보 같이 고생만 한 여자가 돼요. 나는 젊은 시절에 많은 일을 하면서 배웠고,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힘이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고생했다는 생각이 안 들고 고맙더라고요. 요즘 친척을 만나면 저보고 건강해 보인다고 말해요. 젊어서 일을 많이 한 덕에 내가 지금 건강한 거죠.

저는 길을 걸을 때 일부러 꼳꼳이 걸어요. 걸음걸이도 무척 빨라요. 내 나이 50세 중반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뒤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남편을 잃어서 어깨가 축 늘어졌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선 안 되잖아요. 내 남편이 죽은 거지, 그 사람 남편이 죽은 건 아닌데 남에게 왜 그런 모습을 보일까, 싫어서 반듯하게 걸었어요.

어느 날 신부님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란 책을 권해줬어요. 첫 번째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였어요. 작년에 그 책을 구해서 읽었어요. 신부님이 보



여겼을 때는 얇은 줄 알았는데, 제가 친구를 통해 받아보니 책이 두꺼워요. 얼마나 난해한지 기를 무릅쓰고 읽었어요. 보물을 찾기가 어렵지, 고지를 올라 가면 차디차고 시원한 바람을 맞이한다고 했듯이 힘들게 읽고 나니까 책 속에서 보석이 나오더라고요. 책을 읽고 나니 가슴이 뿌듯하고, 저자에 감사해요. 이 나이에도 알게 할 교훈을 주셨잖아요. 요새 다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 권을 외워야겠더라고요. 서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면, 무질서에 혼란스러워도 두려울 게 없다는 말이 쓰여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올바르게 못하니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대요.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으로 알고 들어라, 길을 가다가 고양이를 만나면 쓰다듬어 주어라, 마음에 항상 다정다감을 품고 살라고 책에 쓰여 있어요. 저는 그 책을 항상 끼고 다녀요. 나를 책임을 지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책임을 지래요. 공감되는 말이 참 많아요.

2장, 다가오는 삶

앞으로 다가오는 삶은 내가 미리 정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지만,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늘에 충실해야 해요. 오늘에 충실하면 내일도 오늘, 모레도 오늘, 글피도 오늘이에요. 그러니 오늘에 충실한 거죠.

어린 친구들이 요새 돈 걱정하며 사는 건 나이 먹은 세대가 잘 못 살아온 탓이에요. 돈이 세상에서 일 순위가 되어버렸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보고 자란 게 돈이 우선인 세상이거든요. 가진 자가 겸손하게 돈을 쓰거나 좋은 곳에 쓰면, ‘나도 이다음에 돈 벌면’이라는 마음이 생길 텐데 그렇지 못한 세상이라, 다들 ‘나도 돈 벌어야지.’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깨진 거울이에요. 성공을 보통 돈으로 표현하는데, 사실 성공은 자기 하고 싶은 걸 이루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 것을 성공으로 표현하는 건 문제예요. 돈 버는 건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성공은 아니거든요. 내가 백 원짜리보다 만 원짜리 갖고 싶어서 돈을 벌 순 있죠. 그렇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인 목표가 되면 힘들어요.

딸이 헝가리 인근 나라에 다녀와서 제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엄마, 그 나라는 어딜 가나 사람들이 몰려있어. 내가 가까이 가보니까 누가 책을 읽어주거나 시 낭송을 하고 있더라. 항상 그래. 그런데 거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야.”

딸의 말을 듣고 제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정신이 부자구나.”

어려서부터 인성을 키워야 해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 때문에 망하는 게 많아요. 돈을 제일 끝자락에 두어야 하는데.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그러긴 어렵죠.

지식이 많거나 물질적으로 가진 게 많은 사람, 육신 멀쩡한 사람들이 더 낮은 자세가 되어야 해요. 가진 사람이 겸손해지면 가진 게 적은 사람들도 목소리를 낼 기회가 커지잖아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정신을 구축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쌀 한 톨, 물 한 방울도 참으로 아끼고 절약해요.

나는 서민 갑부라는 말이 싫어요. 서민은 뭐고, 갑부는 뭔가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귀족인가요. 절약하는 걸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요. 우습게 알아요. 그러나 현실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 식당 가서 반찬도 싸 오고 밥도 싸 와요. 나는 먹고살 만하니까 당당하게 식당에서 음식을 싸 오는 데, 내가 만약에 힘든 상황이면 움츠러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남편에게 미안함이 크진 않아요. 내 남편이 되어줘서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나는 남편을 섬기고 살았어요. 지병이 발견되고 나서 제 삶의 대부분은 남편의 아픔을 바꿔주기 위해 한 번도 피부리지 않고 열심히 보살폈어요. ‘남편이 아프지 않은 아내는 나보다 편하겠지?’라는 생각은 했지만, 남편을 위해서라면 녹즙이건 뭐건, 손으로 다 만들어어요. 기계 힘은 안 빌렸어요. 녹즙을 만들 때 식재료를 절구로 뺏아서 베보자기에 싸서 만들어줬어요. 내가 잘 못 해줘서 아쉬운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대신 죽어주지 못한 것이 마지막 최선이었다면, 그거겠지만 정말 정성껏 잘했어요. 남편 역시 저와 27년 살면서 분에 넘치게 잘 해줬어요. 나보다 나를 더 깊이 아꼈던 사람이예요. 그래서 지금도 참 고마워요.

나는 저녁에 밖에서 시간 보내는 걸 싫어해요. 남편도 없는데 왜 일찍 집에 들어 가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 떠나보내고 외롭단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라 하겠지만,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이들을 다 가르치지 못하고 떠났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라



저는 혼자서 네 아이를 가르치느라 정신없었어요. 저는 세상에서 우리 남편 처럼 좋은 남편이 없다고 말해요. 내 맘대로 하고 살라고 하잖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래요. 남편이 밥을 달래요, 옷을 달래요? 우리 남편처럼 좋은 남편 없다고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보이는 남편이 뭐 대단해요. 가슴 속에 있는 남편이 대단한 거지. 어떤 사람이 멋모르고 저더러 남편을 이제 잊으래요.

“평생을 같이 산 남편을 잊는 사람도 있대?”

이렇게 말했더니 그 뒤로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남편 떠나고 1~2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교회에 가는데, 앞에 걸어가는 남 녀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나도 남편이 있으면 팔짱 끼고 갔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도 저 나이 땐 남편 있었잖아!’

저는 다시 생각을 고쳤어요. 이제 다신 그런 생각 안 해요. 항상 같이 있어서 고맙거든요. 내 정신세계를 이끌어 주는 신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어질고 맑게 살라고 제게 인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가게를 했으니 무척 바빴거든요. 일만하고 돈만 버는 것이 사람의 삶은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어야 한다는 생각했어요. 저는 악기를 다루거나 그림 그릴 줄 모르지만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노래는 못 부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일이 바빠서 몸은 매여있어야 하니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 맘대로 굴릴 수 있는 건 머릿속이더라고요. 뇌는 무궁무진하니까 뭐라도 외워보자고 생각했어요. 수필, 성경 등을 보다가 짧고 외우기 쉬운 시를 선택했어요. 시를 외우다 나중에 긴 걸로 넘어가려고요. 마



침 조선일보를 펼쳤는데,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시를 읽고 펑펑 울었어요. 안 그래도 남편을 잃고 서러울 때였거든요. 하늘에 계신 엄마가 단 5분 만이라도 나를 보러 온다면 원이 없겠다며 숨겨놓은 세상사 중에 억울했던 일 딱 한 가지를 일러바치고 영영 울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채봉 시인은 삶을 노래했어요. 보통 시를 읽으면 우직하거나 담백하고, 과묵하거나 화려하다는 등 글 속에 각 시인의 성격이 묻어나거든요. 정채봉 시를 읽으면 시인이 맑고 바른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를 읽을 때마다 삶이 아닌 시가 없어요. 이들은 어떻게 이걸 찾아냈을까요. 연금술을 써서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언어로 변화시켰잖아요. 나에겐 신이 어떤 장점을 줬는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생활인이니, 외우는 것에 전념하자.’

‘매일 아침 나를 다스려요. 오늘이 최고인 날로 살아야지.’

저는 바쁘고 몸이 고달프면 육신도 보살피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나쁜 길만 들어서지 않으면 돼요. 남을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죠. 정신 차리고 사는 데 잘 안될 때도 있어요.

제가 1999년도부터 하나원에 탈북민 교육 자원봉사를 나가면서 얻은 깨달음이 더 많았어요.

2012년부터는 60세 이상인 분께 ‘남한 생활 적응’이라는 수업을 하며 남한 사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은 것을 알고 깨닫게 됐어요. 나는 세상에 감사하고 고마워해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죄송하고 미안함을 보탠 건 탈북민을 만나고부터예요. 뱀을 봐도 미안한데 탈북민을 보니까 더 그래요. 탈북민을 보면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요. 나도 모르고 남한에 태어났고 그들도 모르고 북한에 태어났어요. 탈북민은 먹고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들게 남한 땅을 밟았어요.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살아 있어 줘서 감사해요.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잘살아 보려고 노력하니, 제가 정말 감사하다고 말해요.

주위의 모든 분은 엄마예요. 친엄마가 병약한 나를 키워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을 못 했어요.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는 말대로 꿈에 엄마가 한번 나왔어요. 내가 엄마를 끌어안으며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어요. 엄마는 내 등을 두드려 줬어요. 나도 엄마에게 투정하고 화풀이 다 하고 컸어요. 나이 먹어서도 살갑게 대하지 못했어요. 근데 늙었나 봐요. 세월은 고마운 거예요. 세월

이 그냥, 그냥이 아니에요. 뭔가가 있으므로 하루가 보태져서 세월이 된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살아야지, 사람답게 살아가야지, 허투루 살지 말아야 한다고 기도하고 가게에 나가요. 똑바로 서서 어깨를 펴고 걸어요.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잘해요. 20년 전에 친구가 나를 신랄하게 비판하더라고요. 근데 어이가 없어요. 집에 돌아와서 3일을 생각하니까 내게 그런 말을 해줘서 좋은 친구 같은 거예요. 친구를 찾아갔더니 도리어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저를 일깨워 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한다는 말이 진리예요. 근데 배워야 해요. 그 친구가 여러 이유에서 그랬겠지만, 세상 사람이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상처받지 말고 뛰어넘는 걸 배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누가 제게 싫은 소리를 해도 나는 얼굴색 하나 안 변해요. 생각을 바꾸니 내 마음이 달라져요.

3장, 받아들이는 삶

제가 탈북민에게 여덟 가지를 가르쳤어요. 탈북민이 남한에 와서 허풍 든 모습을 보이기에 냉정하게 말해줬어요. 냉정하다는 건 깊이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앞을 살아가기 위해서 냉정하게 말해주는데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탈북민이 한국 땅 밟으면서 받은 게 많잖아요. 그걸 나중에 갚으라고 말해요. 사람이니까 갚아야죠. 짐승이면 안 갚아도 돼요. 탈북민에게 어떻게 갚을 거



냐고 물어봤더니, 돈 벌어 갚는대요. 그래서 다 틀렸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교육받고 생활하면 세탁기 돌릴 거냐고 물어봤어요. 두세 식구 사는데 세탁기를 쓸 거냐는 거죠. 남한에 와서 갚을 건, 그거예요. 세탁기 안 쓰면 세제를 덜 쓰죠. 세제가 물속에 흘러가면 정화하는데 처리 비용, 많은 물, 시간이 필요해요.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일이 첫 번째 보답이에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지하에 있는 물은 끌어다 먹어도 새로 만들 수 없어요. 물 절약, 전기 절약만 해도 갚은 거라고 해요. 그분들은 건강해 보여요.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면서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세포가 강해요. 신장이 아파서 치료 중인 이복 할머니와 팔씨름했는데 제가 졌어요. 그 뒤로 다신 안 해요. 할머니 팔뚝에서 힘

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강인한 힘, 정신이 깔려있거든요.

《삼위일체 기본영문법》, 《삼위일체 건강법》을 쓴 안현필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부엌일은 건강에 좋대요. 특히 빨래는 전신운동이래요. 저는 지금까지 손빨래를 해요. 요즘 손이 아파서 행굼은 세탁기에 부탁하지만, 빨래를 비비는 건 재래비누로 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나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간과해요. 노력하라는 말도, 가기 힘드니까 노력하라는 말이 나온 거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나를 볼 땐 답답할 수 있지만 나이 먹으면 내 삶을 좇아갈 것 같아요. 가난한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아끼는 이유는 땅과 하늘이 만들어 준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남은 음식물을 닭에게 주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진 적이 있어요. 인간은 안 먹는다고 배부르다고 음식을 버리는데 닭이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인간이 먹다 버린 음식이 닭이 맛있게 먹고 있는 걸 보자니 참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작은 텃밭을 가꾸는데 흙이 정말 고마워요.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끼어들어 사는 거잖아요. 흙을 함부로 못 하겠어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니까요. 저는 일이 많거나 해야 할 일이 쌓였을 때 생각을 얼른 정리해요. 일을 제게 맡긴 건 제가 건강하고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일해요. 이 나이에 쉬고 싶은 건 맞아요. 편히 살고 싶기도 하지만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 남겨놓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후손에게 무엇을 주고 가야 하는지, 생각에 다다랐을 때 뭐든 아끼자는 거죠. 물 한 방울, 전기도 아끼자, 가스도 아끼자, 휴지도 아껴 쓰자. 내가 덜 쓰고 가자는 거죠. 죽은 날 얼마 안 남았는데도 덜 쓰고 가자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요.

10권

박소영 사람책

‘나는 전통춤을 춘다’

“한복은 입는 게 많아요. 속바지, 속치마와 겹치마 몇 개, 저고리, 춤 소품, 큰머리, 족두리, 뒤에 하는 쪽머리, 모두 장착하면 꽤 무거워요. 체력 소모도 되고 정신력으로 버텨야 해요. 공연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늘 긴장 상태예요.”

- 박소영 (한국무용가)

contents

1장 춤을 시작한 동기

2장 효

3장 삶의 도전과 변화

keywords

#전통춤 #한국무용 #무용과

#춤꾼 #효

story





박소영 사람책

‘나는 전통춤을 춘다’

1장, 춤을 시작한 동기

7살 때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하면서 <도라지 타령>에 맞춰 한국무용을 했어요. 반짝이는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머리를 땀고 화장하니까 예뻐 보여서 좋았어요. 집에 가서 무용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안성에 있는 학원을 알아봤지만, 근처에 학원이 없었어요. 평택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상 결국 다니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간직했어요.

요즘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어요. 사소한 기회가 제 인생을 좌지우지할지는 생각 못 했거든요. 제 내면에는 계속 한국무용뿐 아니라 춤에 대한 흥과 끼가 있었나 봐요. 초·중·고 체육대회 때 치어리더를 하며 무대에서 한을 풀었어요. 고등학교 때 무용동아리가 있어서 한국무용과 발레를 배우긴 했는데, 취업이 우선이라 배움이 길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다시 한국무용을 하겠다는 다짐만 했죠.

실업계고등학교를 다니며 의무적으로 취업 준비를 했어요. 대학 진학반에 잠시 있다가 공부보다는 사회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연농원에서 에버랜드로 바뀌던 시점에 우리 기수가 다 투입됐고 각 지역에서 많



은 인원이 모였어요. 저는 상품팀으로 매장 상품 진열, 재고 정리, 캐셔 등을 했어요. 처음에는 월급이 들어오니 일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만족감이 컸어요. 그런데 일직 사회생활을 하니 힘든 점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은 제 또래가 졸업하기 전에 에버랜드로 소풍을 온 거예요. 친구들과끼리 모여서 노는 모습을 보니 제 모습이 서글프고 초라해 보였어요. 겉모습은 화장하고 유니폼을 입고 구두 신고 예쁜 자세로 서 있었지만, 내면은 어린 학생으로서의 모습을 더 남기고 싶었나 봐요. 문득 더 공부하고 싶다는 욕구가 밀려왔어요. 저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나는 학생인데 왜 돈을 벌어야 하지? 나는 왜 여기 있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현실과 내 욕구가 부딪히다가 퍼레이드팀 무용 단원의 화려한 공연을 보고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어릴 적 꿈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19살부터 20살까지 1년 6개월간 직장생활을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표를 냈어요. 그때는 IMF를 겪기 전이라 월급 외에 보너스, 명절 선물 등 직원 혜택이 좋았어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 그만둔 거예요.

마침 동네에 무용학원이 생겼어요. 제가 학원 등록을 했을 때는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뀐 시기였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이니까 입시학원과 무용학원을 동시에 다녔어요. 저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치어리더를 하면서 몸에 리듬감이 배어있었어요. 한국무용은 발디딤새 같은 특이한 기술이 있어요. 운동선수처럼 최적화되도록 무용 입시 준비를 했어요. 호흡을 잘 살려야 하고 기술을 익히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저는 20살에 무용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21살에 송의여대 무용과에 입학했어요.

뒤늦게 입시 준비해서 무용과를 졸업했는데. 주위에서 무용하면 가난해진 다, 돈이 안 된다는 등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98학번인데 입학하기 전 해인 1997년에 IMF가 터져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 인생의 모순인 부분을 꼽자면, 이때였어요. 제가 23살에 졸업하고 현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무용이 아닌 다른 일을 했거든요. 엄마 아는 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교사를 했어요. 적성에 맞아서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보육교사 자격증도 취득했어요. 한동안 어린이집 교사를 쪽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넓은 곳에서 직장 생활이 하고 싶어서 서울에서 다른 직장을 다녔고,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두 아이 엄마가 되는 과정이 고통의 연속이었죠. 내가 왜 아이를 낳았을까,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사람을 돌보고 키워 내는 게 부담됐거든요. 나로 인해 잘못 성장할까 봐서요. 걱정과 두려움이 커서 한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아이 키우는 데 집중했어요. 아이들이 저와 있는 시간을 잘 따라줘서 몬테소리 교구 수업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시켜줬어요. 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해서 적성을 찾고 직업을 찾아가고, 자기 일하면서 살아가길 원했거든요.

어느 정도 아이를 키워놓고 나니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해 줄 몫을 다했으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떠오른 건, 춤이었어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 인생 중 가장 모순이었던 때로 돌아가서, 극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유지하지 못했던 걸 지금이라도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무용을 하며 살아보자고 다짐했어요. 저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학원에 가니 저와 비슷한 사람이 많았어요. 합이 맞는 사람들과 연습하고 공연하거나 축제에도 참여했어요. 취미활동을 꾸준히 하는 와중에 제가 업그레이드 가 되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무용을 취미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진학 계획을 세웠어요. 방법을 알아보다가 학점은행제를 알게 되었어요. 4년제 학위를 취득하고 세종대 일반대학원 무용과를 졸업했어요. 뒤늦게 무용을 하려니 20대 때처럼 몸매 유지가 안 되고, 체력도 저하되었고, 조금만 해도 숨이 찼어요. 그런데 운동과 똑같아요. 반복하다 보면 리듬감도 올라가고 긴장감도 올라가니까요.

공부하느라 아이를 맡기고 학원 갔다 오고, 남편 눈치도 봤죠. 부모님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무용을 다시 하는 걸 보고 미안해했어요. 어릴 때 하고 싶어 했는데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완전 타인이었잖아요. 제가 무용과 졸업했으니, 예상했겠지만 무용을 취미로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전문적으로 해서 많이 부딪혔어요. 굳이 왜 해야 하냐는 거죠.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지와 경제적인 부분도 이야기하며 다뤘어요. 그런데 남편 취미가 낚시거든요. 처음에는 근처 저수지에서 짧게 하고 왔는데 점점 전문화가 되어서 낚시용품도 사고 배도 사더라고요. 1박 2일로 갔다 오고 낚시대회에 나가서 상금도 타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본업을 그만두고 낚시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나의 길을 가겠다고.

“네가 취미로 무용하다가 전문가가 되고 싶은 것처럼 나도 일을 그만두고 낚시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당신은 가장이지 않느냐고 했어요. 서로 생각이 부딪쳐서 많이



싸웠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 서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싸우고 갈등하면서 제가 왜 무용을 하고 싶은지, 그 사람은 낚시를 왜 하고 싶은지 이해하게 됐거든요. 남편이 낚시할 때 따라가 봤더니 생각보다 정말 좋은 거예요. 안동댐이었는데, 물이 깨끗하고 주변이 고요해요. 각자 자기 배로 낚시대를 던져놓고 사색해요.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더 건전해 보이는 거죠. 손맛을 느껴야 하니 술도 안 먹어요. 일상 속 힘든 일에서 벗어나 나에게 집중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 좋더라고요. 남편의 마음이 이해되면서 계속 낚시하러 가라고 말했고, 남편도 제가 대학원 가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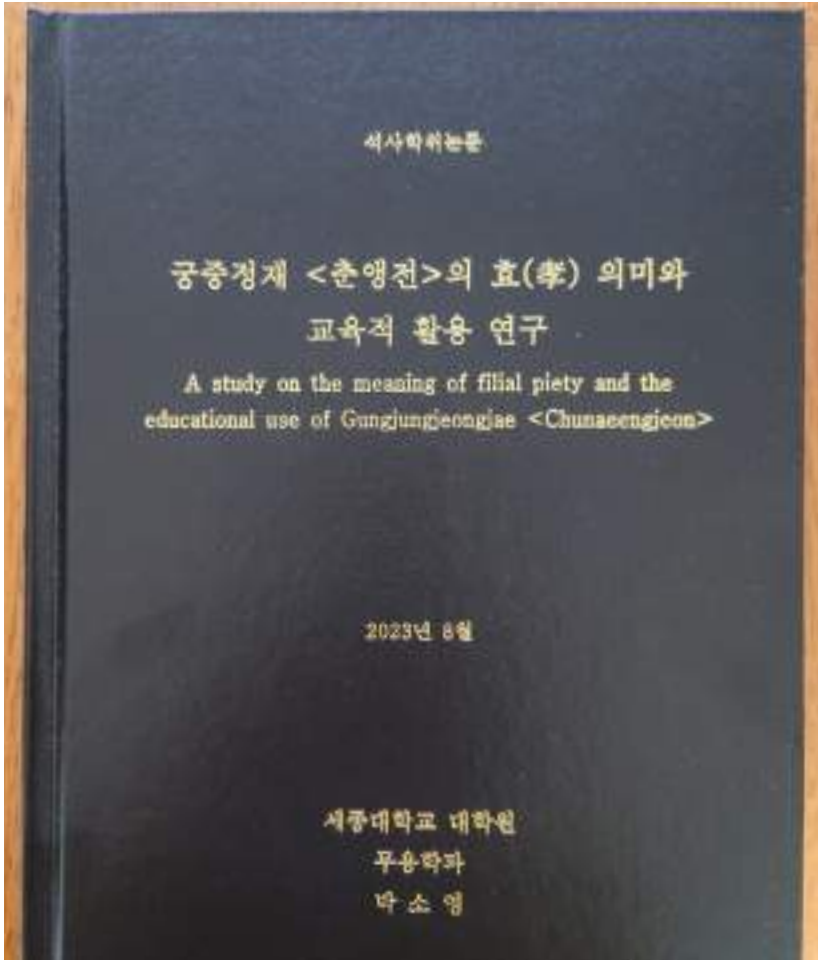
2장, 호

대학원에 진학하고 코로나19가 터졌어요. 실기, 이론 모두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시험도 영상을 찍어서 보냈어요. 아무래도 직접 배우는 것보다 현장감이 떨어지잖아요. 등록금은 나가는데 내가 뭘 하는 건지, 2년 정도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되고 문화 예술 분야가 침체됐거든요. 저는 무용을 해 오지 않아 공연이 없었지만 기존에 활동하던 분은 타격이 컸어요. 저는 저만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원에 다니며 수업을 들었고 졸업해야 하니 논문 준비를 했죠.

논문이 제 인생에 전환점이 됐어요. 논문 주제를 정해야 하는데 막막했어요. 주제 선정부터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궁중무용, 호에 대한 주제를 찾게 되어서 논문 형식을 갖추기 위해 준비를 했죠. 논문 주제가 된 춤이 <춘앵전>인데 궁중무용 중 하나예요. 춘앵전은 조선시대 순조 아들 효명세자가 재창작한 춤이에요. 효명세자가 모친 생신 때 축하하는 마음을 표시하려고 춤을 올렸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효명세자의 마음이 따뜻해 보였어요. 효명세자가 궁중무용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춘앵전 말고도 많아요. 문화재로 지정된 건 두세 가지뿐이고, 춘앵전은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했어요. 그래도 계속 현존하고 국립국악원에서 궁중무용을 계속 공연해요. 우리 것을 잊지 말자는 거잖아요.

논문 쓰면서 궁중무용, 효명세자, 역사, 철학 등 다양한 범위를 접했어요. ‘무용은 춤만 잘 추면 돼.’ 라는 생각을 하다가 논문을 쓰면서 이론이 바탕이 되어야 춤도 더 잘 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범죄는 도덕성, 윤리성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봐요. 일단 기본적인 도덕 개

념이나 효에 대한 관념이 없어졌어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예전처럼 애
절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을 보며
효명세자가 엄마를 생각했던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장, 삶의 도전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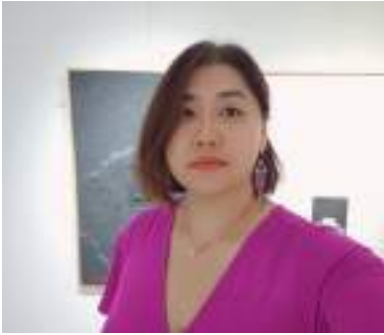
한이 있으면 풀어야 해요. 저도 풀기 위해 투쟁을 해왔어요. 자신과 투쟁하고 남편과 투쟁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한국무용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시작하세요. 한국무용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를 깬다면 좋겠어요. 뭐든 시작해야 다음을 알 수 있어요. 아마 매력에 빠지실 거예요. 한국무용 속에는 나라의 역사와 문화, 사상, 철학적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들뜨지 않아요. 발레는 서양 춤이라 요정이 되고 싶거나 하늘로 날아가고 싶은 사상이 담겨있는데 한국무용은 토속적이고 땅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은 땅에서 살아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과 호흡, 하늘과 호흡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잖아요. 그래서 땅과 호흡하는 게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굴신이라는 동작을 할 때 무릎을 굽히는데, 땅에서 뭔가 나를 끌어들이는 듯한 에너지를 써야 해요. 걸음마다 투박하거나 출렁거리지 않아요. 묵직하면서 굴곡, 포물선이 있고 곡선으로 움직이잖아요. 예전에 드라마 <황진이>에서 기생 황진이가 춤 연습할 때 바닥에 꿀을 발라놓고 연습하는 장면이 나와요. 터벅터벅 걷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걷는 연습을 하려고 끈적끈적한 꿀을 바닥에 바른 거예요.

한국무용에는 동양철학이 스며들어 있어서 음양오행 사상, 오방색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오방색은 황, 청, 백, 적, 흑 다섯 가지 색을 말하는데 한국 전통 색상이에요. 음양오행은 천지와 우주, 호흡, 돌고 도는 순환, 자연의 섭리와 이치가 연결되어 있어요. 춤 안에 무용 에너지가 담겨 있어요. 직선으로 꺾는 게 아니라 지구 안에서 추는 춤은 지구 모양처럼 순환되고 둥글어야 하는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술은 기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AI와 로봇이 발달해도 로봇이 한국 무용을 출 수 없어요. 일반 댄스는 따라 하겠지만, 들숨날숨의 단전호흡을 해야 하는 한국무용은 출 수 없어요. 춤추려면 심장도 느껴야 하고 뇌와 감각 기관이 움직이고 속근육이 함께 움직여야 호흡이 나와요. 기계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함께 춤을 출 때 남을 배려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해요. 나만 돋보이는 춤을 출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며 호흡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호흡을 나누려면 마음이 따뜻해야 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서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길 바라며.



특정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책을 우리는 곳곳에서 만나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책’은 태어난 순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은 경험과 다양한 감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2000년, 휴먼 라이브러리는 덴마크 출신의 사회운동가 ‘로니 에버겔’이 덴마크의 뮤직 페스티벌의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안됐다. 어린 시절 ‘로니 에버겔’은 친구가 덴마크 시내에서 말다툼하다가 칼에 찔려 숨진 사건을 겪은 후에 비폭력 청소년 운동에 뛰어들어 폭력과 편견을 없앨 방법을 고민해 왔다. 그러다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좋은 이웃으로 성장하게 하는 이벤트를 개최해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서로 진솔한 대화를 하게 하자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시작된 대화 프로그램에는 4만 명이 참여하며 대성공을 이뤄냈다. 유럽에서부터 전 세계 70여 개 나라로 확산하면서, 시작된 휴먼 라이브러리 운동의 시초가 된 것이다.

그 이후 우리나라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서울 노원구에 노원 휴먼 라이브러리가 시작되었다. 어찌 보면 사람책은 또 다른 인문학으로 현시대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인문학은 사람들에게 소외되는 문학으로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2014년 세월호 사건이 터짐으로써 사람들은 다시 사람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감정을 읽기를 원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의 삶 속에서 느끼고자 하는 매우 많은 요소를 공감하고자 했다.

2015년 경기도 교육청의 ‘사람책 민주회’로 활동을 시작한 나는 청소년들에게 내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며, 사람책 활동을 해오다가 ‘안성에도 사람책 활동 생겨나면 어떨까?’라는 생각과 꿈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그 꿈은 드디어 2023년 안성시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인 《사람책, 지구에 점 하나》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뤄졌다. 10명의 사람책과 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삶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사람책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그 바꿀 수 없는 이야기는 서로에 대한 감정과 활동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책 주인공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했다. 어찌 보면 사람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만큼 소중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지구 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경험과 공감적인 요소를 전해주기도 한다.

현실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름으로만 들었던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쁜 사람 또는 좋은 사람으로 남겨질 때도 있고 그렇게 남겨진 사람책의 느낌은 일과 관계에도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입견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전한 사람책과의 이야기 나눔으로 우리는 사람책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과 새로운 깨달음에 다다르게 된다. 그리고 '사람책'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내가 가진 사람책과 공감 요소를 끌어낼 수 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온전히 그 사람책을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어야 하고 끊임없이 자기반성을 해야 하며 사람책으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책이어야 한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책 관계성 안에서의 결과물이다. 이런 점에서 《사람책, 지구에 점 하나》는 어찌 보면 또 다른 나를 찾아가기 위한 시간이었고 내 모습과 나를 소중하게 느끼게 해준 순간이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나만의 삶이 그리도 비참하지 않았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자기반성과 자기 이해를 하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지금 이 순간 난, 계속 쓰여가는 한편의 사람책이니까 말이다.

- 사람책 진행자 민주희



문화는 다양한 모습이 있고 인간 삶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확히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화라는 뜻은 체험적으로 접하는 모든 문명의 이면에 숨어있는 시스템(system) 속 구조(structure)입니다. 그 구조를 이루는 근본은 결국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구조이고, 그 단위체가 모여 어떠한 보편성을 이루고 있는지를 볼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문화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술

가로서 문화를 대하는 자세가 관심을 넘어 탐구의 대상이고, 제 삶의 일부입니다. 지금의 문화를 파악하고, 반성과 고민, 나름의 해결책을 그림에 담으려 노력합니다. 이런 점에서 처음 '사람책' 참여 제의를 받았을 때 고민 없이 수락했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그동안 파악한 문화는 포용력이 있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며 나와 다른 생각과 느낌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사람책'의 성격은 다른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사람 그 자체가 목적인 삶의 모습을 담는 것이고, 주인공으로 와 주신 분들과 소통하며 최대한 사람 자체의 이야기를 만들거자 노력했습니다. 결국 문화를 이루는 주체인 사람의 근본 모습은 나와 타인, 그 속에 숨어있는 시스템의 구조이니깐요. 직업이나 전문 지식, 또는 학력과 같은 인생의 수단이 이야기의 목적이 되지 않고, 한 생명이 태어나서 어떠한 과정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가는지를 끌어내서 공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름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 해보는 라디오 진행도 어려웠지만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고의 구조를 이해와 해석을 통해 공감하는 일 역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선입견을 알아채서 자신을 반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쟁을 부추기는 문화 속에서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공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해도 어찌 보면 미숙한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그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겪어야 했고, 소외됨이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쟁에 지쳐있는 모습 또한 우리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개성 있는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 다 같은 사람이기도 하지요. 다르지만 같은 우리 삶,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으며 오로지 나 자신을 탐구하고 나를 즐기는 주인공, 나와 또 다른 주인공과 즐겁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책'이 계속 만들어져 가길 바랍니다.

- 사람책 진행자 김지윤

사람책에 대해서는 십여 년 전 한 지인의 소개로 어렵פות이 들은 기억이 있다. 그때 들은 사람책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내 기억에서 희미해졌다. 그러던 중에 안성문화도시추진단 사업의 분임 FT로 사람책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희미한 기억이 떠오르면서 한 사람 자체가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다는 신기함에 이야기의 주인공이 기대되었다. 사실 내 삶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다른 사람 삶의 이야기를 모두 듣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기회도 흔치 않다. 이번 기회로 열한 분의 소중한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경험이었다. 우리는 누구나 한번 태어나 한번 죽는 인생의 여정에서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인생이고, 스스로 삶을 기획하고 연출하여 살아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게 된다. 사람책 녹음에 참여하면서 “그러니 우리 모두 살아도 괜찮다, 잘살고 있다”고 위로받고, 응원받는 것 같았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프로젝트가 아니라 살랑살랑 바람 부는 창가에 앉아 여유롭게 누군가의 긴 사람책을 듣고 싶다.

- 사람책 퍼실리테이터 김현순

사람책 프로젝트는 개개인을 책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책을 읽는 경험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하여 이해와 연결을 형성합니다. 참여자들은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단순한 글과 문장을 넘어 다른 이에게 더 큰 영감과 이해를 주게 됩니다.

안성시, 안성미디어센터 그리고 시민활동가의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필요와 요구에서 시작된 특별한 사람책 《사람책, 지구에 점 하나》

올해 첫걸음으로 작지만 소중한 10명의 사람책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안성시, 안성미디어센터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한 공간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 안으로, 시민의 삶 안으로 녹아들어 이웃의 생김생김을 살피고 서로 일상을 나누고 교류하는 데 앞장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사람책 담당자 김은정

경기도 안성시 발화대길21, 안성맞춤아트홀 주민편의동 2층

대표번호 031-671-9830
홈페이지 www.asmedia.or.kr
대표메일 asmedia@asmedia.or.kr



발행일 2023년 11월
발행처 안성미디어센터
총괄 김우현, 김은정
기획 김은정, 민주희, 김지윤, 김현순
사람책 저자 강철규, 박소영, 박송경, 박순철, 송용운,
이인숙, 이종일, 임상철, 전미선, 전준기
제작 차차책고 출판사
디자인 루아흐 디자인
표지 디자인 김지윤
ISBN 979-11-978276-4-8

- 이 책의 저작권은 안성미디어센터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 책자의 표지와 본문 일부에 '국립박물관문화재단클래식체', '경기천년바탕체'가 사용되었습니다.